

2015 Vol.57

# 경북의사회회보

## 회무소식

캄보디아 간달 지역에서 세 번째 해외 의료봉사  
해외 의료봉사 공로 캄보디아 왕실 훈장 수상  
제4회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  
금오산 칼다봉 산행으로 회원 친목 및 건강증진 도모

## 공지사항

2015년도 의사회비 납부 요청 및 신용카드 결제 안내

## 기획연재

원격의료  
일탈을 찾아서(1)\_ 권순호, 그는 왜 탁구에 빠졌는가?

## 의학칼럼

중증 MERS 폐렴 환자 진료에서 중환자 전담 전문의의 역할

개인 정보보호 의료기관 자율점검

해외 의료봉사 특집



경상북도 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 2015년도 의사회비 납부 요청 및 신용카드 결제 안내



2015년도 의사회비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 고양과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회비는 의원 신장과 더불어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은 물론 단합된 회세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단체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의사단체의 존재성을 되새겨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로도 회비납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본회 소속회원)

## 납부방법

- 계좌입금 : 농협 301-0104-6600-81 경상북도의회
- 카드결제  
홈페이지(<http://www.igbma.or.kr>) 접속 → 회비납부 클릭(화면 우측 배너) → 해당금액 결제

##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 회비면제 기준
  - 만70세 이상의 회원(1945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자비)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 회비 감면회원
  - 개원회원('가'회원)중 만 65세 이상 '나'회원회비 적용 : 501,000원 징수
  - 만65~69세이상 회원 : 1945년 5월 1일 ~ 1950년 4월 30일 주민등록상 기준

## 회비내역

- 회계기간 : 2015. 4. 1 ~ 2016. 3. 31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입회비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휴직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30,000	251,000	251,000	145,000	145,000	116,000	100,000	연회비 · 의협신문구독료 연구소 · 종합학술대회비 한방대책 · 투쟁특별회비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50,000	75,000	-	-	-	
계	580,000	501,000	401,000	220,000	145,000	116,000	100,000	

경북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 경북의사회

2015 Vol.57



06



21



23

발행인 김재왕 | 편집인 권준영·서의태 | 발행일 2015년 10월 29일

편집위원 노진우·장필식·권준영·서의태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에드 TEL. (053)555-3336 FAX. (053)557-3273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88길 24

발간등록번호 GBMA-2015-6-13

## Contents

### 04 특별기고

지역민들의 건강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라며... · 이태형

### 05 회무(포토)소식

캄보디아 간달 지역에서 세 번째 해외 의료봉사  
해외 의료봉사 공로 캄보디아 왕실 훈장(‘사하메트레이 훈장’) 수상  
제4회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  
금오산 칼다봉 산행으로 회원 친목 및 건강증진 도모

### 27 회무단신

### 32 회원 동정

### 34 분회 및 병원 소식

### 35 기획연재 I 원격의료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회

### 41 진료정보 Tip

오진과 의료분쟁 · 장필식

개인 정보보호 의료기관 자율점검, 2015년 12월 말까지 받아야 합니다 · 이영삼

### 44 기획연재 II 일탈을 찾아서(1)

권순호, 그는 왜 탁구에 빠졌는가? ·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회

### 48 의학 칼럼

중증 MERS 폐렴 환자 진료에서 중환자 전담 전문의의 역할 · 이상민

### 52 회원 문예

시가있는 풍경 버드나무 숲 · 박송훈

수 필 북유럽 여행 · 신은식

너 여기까지 참 잘왔다 · 손경식

유라시아 친선 특급 열차 의무실 · 이종규

조선시대 표류기 · 김종규

아들과 함께한 차마고도 트레킹 1부-호도협 · 노진우

보 고 서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발생 현황 · 임현술

### 78 해외 의료봉사 특집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돌아보며 · 김재왕

캄보디아에서 흘린 땀 · 장유석

지금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그들과 만나고 싶다 · 김해련

가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한 열정의 경험,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 민현지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환자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 뿌락 쏘마리



이태형 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 지역민들의 건강 파수꾼이 되어주길 바라며...

먼저 '제57호 경북의사회보' 발간을 축하드리며,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의사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보건의료 관련 소식들을 신속하게 보도하고자 열정을 쏟는 경상북도 의사회의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건강보험의 양대축인 의료공급자와는 지속적인 교류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더욱 합심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근 우리 공단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국민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라는 뉴비전을 선포하였으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공급자인 경상북도 의사회도 우리 공단의 주요 현안을 같이 공유하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57호 경북의사회보' 발간을 축하드리며, 귀 회보가 경북의사회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의료전문가의 권익을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며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출정식



▲ 장유석 의료봉사단장의 경과 보고, 김재왕 의사회장, 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 추무진 의협회장의 인사



▼ 라칸하(박선미) 결혼이주여성 친정국가 보내기 사업



## ▶▶▶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활동(프렉로카 보건소)



인천공항을 출발한 72명의 의료봉사단은 7월 22일(수)부터 캄보디아 간달 지역 프렉로카 보건소에서 내과·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영상의학과·치과·한의학과의 12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프레코카 보건소는 전기와 수도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이어서 전기는 발전기로 조달하고, 진료와 음용에 필요한 물은 먼 거리에서 공수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현지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기본 외래진료를 비롯한 위내시경검사 25건, 외과수술 25건, 안과 돌보기 처방 1,000건, TPI(통증유발점주사) 시술 120건과 영상초음파검사, 발치 및 충치치료, 침·뜸시술 등으로 연인원 환자 3,674명을 진료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 ▶▶ 학교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프레로카 초등학교)



캄보디아 간달주의 프레로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과·외과·치과 검진과 손씻기 등의 예방, 위생교육을 병행하는 '학교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은 진료장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사업 전개를 위한 MOU 협약식



경상북도의사회를 비롯한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과 캄보디아 NGO 단체인 TYDA(Samdach Techo Voluntary Youth Doctor Association) 및 CMVA(Cambodia Medical Volunteer Association)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및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며 캄보디아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협약하는 MOU를 체결하고 향후 원활한 의로서비스와 실질적 임상기술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캄보디아 간달 지역에서 세 번째 해외 의료봉사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 슬로건으로 무료진료  
현지 주민 3,674명 진료 및 의료봉사 사업 전개를 위한 MOU체결 등 전개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와 경상북도는 지난 7월 21일(화)부터 26일(일)까지 의료수준이 낙후된 캄보디아 간달 지역의 프렉로카 보건소에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 현지 주민 3,674명에게 사랑의 인술을 베풀었다.

금년 해외 의료봉사는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와 경북도청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을 출범시킨 가운데 내과, 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치과, 한의과의 12개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현지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활동을 펼쳐 세계속의 경상북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돌아왔다.

첫날인 7월 21일(화) 오전 10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본회 김재왕 회장과 의협 추무진 회장, 경상북도 이인선 경제부지사, 경상북도 보건단체장과 봉사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에는 의료봉사단 장유석 단장의 경과보고, 본회 김재왕 회장과 경상북도 이인선 경제부지사, 의협 추무진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을 위한 항공권 전달, 꽃다발 증정,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의료봉사단은 이튿날인 7

월 22일(수)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85.4km 떨어진 간달지역 프렉로카 보건소에 도착하였다. 12개의 진료과목으로 구성된 우리측 72명(의사 17명, 치과의사 4명, 한의사 2명, 약사 5명, 간호사 15명, 행정 4명, 통역 1명, 방송 2명, 가족 22명)과 캄보디아 현지인력 74명(의사 17명, 치과의사 10명, 프놈펜대학 한국어과 통역학생 25명, 선교사 9명, 행정인력 10명, 지원인력 3명)을 합쳐, 총 146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도착하자마자 한 몸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진료장소로 제공된 프렉로카 보건소는 전기와 수도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이어서 전기는 발전기로 조달하고, 진료와 음용에 필요한 물은 먼 거리에서 공수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틀간의 진료 활동으로 현지 및 인근지역 주민의 기본 외래진료를 비롯하여 위내시경검사 25건, 외과수술 25건, 안과 돋보기 처방 1,000건, TPI(통증유발점주사)시술 120건과 영상초음파검사, 발치 및 충치치료, 침·뜸시술 등, 연인원 3,674명을 진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지난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6개월간의 연수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받은 캄보디아 의사 ‘키 왓타낙’씨가 금번 해외의료봉사 내과 의료진과 함께 협진하는 등 연수교육의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봉사 때와 같이 ‘결혼이주여성 친정국가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경산)에 시집온 결혼이주여성 라칸하(박선미, 28세)씨가 동행하여 친정방문과 함께 봉사단의 통역과 안내 업무를 도왔다.

의료봉사 이외에도 캄보디아 깐달주의 프렉로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과·외과·치과 검진과 손씻기 등의 예방, 위생교육을 병행하는 ‘학교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은 진료장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경상북도의사회를 비롯한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과 캄보디아 NGO단체인 TYDA(Samdach Techo Voluntary Youth Doctor Association) 및 CMVA(Cambodia Medical Volunteer Association)는 지난 7월 25일(토) 오후 4시, 프놈펜 호텔에서 훈마넷 장군(TYDA 이사장), 수스 야라 국회의원, 의료봉사협회 향 찬보흐레아크 회장, 헝 소판하 부회장, TYDA 소우 시판나 부회장 등의 캄보디아 측 관계자와 본회 김재왕 회장과 장유석 봉사단장을 비롯한 약사회 한형국 회장, 간호사회 윤난숙 회장, 치과의사회 안영두 부회장, 한의사회 한영주 부회장 등의 우리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두 단체의 파

트너십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및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며 캄보디아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협약하는 MOU를 체결하고 향후 원활한 의료서비스와 실질적 임상기술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의사 1인을 초청하여 연수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봉사단은 진료활동 뿐만 아니라 수술 및 분만셋트 등의 의료소모품(320만 원)과 각종 의약품들(5,200만 원)을 전달하여 캄보디아 국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깐달 지역 주민들에게는 치약 및 칫솔 1,500개, 일회용 밴드 3,000개, 스카프 300장 등의 물품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경상북도의사회는 해외의료봉사 사전답사 및 행정경비 일체, 결혼이주여성 국가 방문 경비, 벽걸이 및 스탠드 형 선풍기 20대를 제공 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구경북 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백효중), 경상북도 적십자사(회장 강보영)에서 후원금을, 경상북도치과의사회에서 치약칫솔셋트 1,500개, 경상북도간호사회에서 스카프 200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동원약품, 대구은행, 한국감염관리본부, 53개 제약회사, 지멘스코리아에서 의약품과 초음파기기, 물품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료봉사가 진행되도록 도왔다.

본회 김재왕 회장은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캄보디아 깐달 지역은 아프리카의 오지처럼 험박고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불과 50년전 까맣게 잊었던 바로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였다”며, “지난번 사전 답사에서 현지 지도자들과의 허심탄회한 협의를 통해 무료진료와 건강교육 뿐만 아니고 현지 의사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료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부분을 의논하면서 단순한 도움만 받는 것을 넘어 변화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진정한 열의와 갈망을 읽을 수가 있었다”며 “짧은 기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세계 최하위의 의료수준에서 최정상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실감 했으며 원조를 받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들의 발전을 기대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었던 것은 의료봉사를 위해 후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과 자신의 시간과 노력, 제반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봉사단원으로 기꺼이 참여해 준 여러분들께서 봉사하고 존경받는 의료인상 구현에 솔선수범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한다”며 봉사단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제3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 해단식 개최



경상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의료수준이 낙후된 해외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한 희망나눔 의료봉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봉사단원과 함께 의료봉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해외의료봉사단 해단식을 지난 8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해단식에는 본회 김재왕 회장과 장유석 의료봉사단장을 비롯한 경북 5개 보건단체장과 캄보디아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스스 야라 국회의원, 김명철 캄보디아관광청 한국 사무소 대표, 의료봉사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단원 전원에게 감사의 증서를 전달하는 한편, 안동MBC '전국시대'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해

외의료봉사 활동상을 상영하여 그 때의 진료활동을 되새겼다. 또한 장유석 의료봉사단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해외 의료봉사의 진행경과와 활동결과, 소요경비 등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향후 의료봉사에서의 개선사항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의료봉사단원들 또한 사회 발표시간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 준 경상북도 의사회와 경상북도보건단체 의료봉사단에게 감사를 표하고 금번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고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



## 2015년도 제3회 경상북도 보건단체 해외 의료봉사

### I 캄보디아(Cambodia) 일반 정보

- 언어 : 크메르어
- 면적 : 181,035km<sup>2</sup>, 세계 90위(CIA 기준)
- 인구 : 약 15,458,332명, 세계 68위(2014.07. est. CIA 기준)
- GDP : 178억\$, 세계 108위(2015 IMF 기준)
- 기후 : 전형적인 열대몬순기후로 10월 중순~5월 초의 건기와 5월 중순~10월 초의 우기
- 종교 : 남방불교 95%, 기타 5%

### II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 목적 및 경과 보고

#### | 봉사목적 및 배경 |

-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료인상 구현을 위해 2013년도부터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의료봉사를 전개하고 있음.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하고 '세계속의 대한민국, 세계속의 경상북도의 독심과 위상'을 보이고자 함.
- 2013년·2014년은 경상북도의사회 주최로, 2015년도부터는 경상북도 보건단체 주최로 해외의료봉사를 추진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Ⅰ 해외의료봉사 준비 관련 경과 보고

1) 의사회 사전 준비회의(2회)

- 제1차 회의 : 2015. 1. 30(금) 19:30, 인화반점
- 제2차 회의 : 2015. 2. 23(월) 19:30, 본회사무처

2) 보건단체 준비위원회(3회)

- 제1차 회의 : 2015. 3. 25(수) 19:30, 의사회 3층 회의실
- 제2차 회의 : 2015. 4. 23(목) 19:30, 의사회 3층 회의실
- 제3차 회의 : 2015. 5. 19(화) 19:30, 의사회 3층 회의실

3) 전체 의료진 준비모임 회의(2회)

- 제1차 의료진 : 2015. 6. 11(목) 19:30, 의사회 3층 회의실
- 제2차 의료진 : 2015. 7. 9(목) 19:30, 의사회 3층 회의실

4) 경상북도 예산 요청 및 캄보디아 관계자 준비 회의

- 2014. 8. 26 김관용 도지사 및 장대진 도의회 의장 방문 간담회를 통해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 공동 진행에 따른 경비 지원 (의약품 및 진료물품 비용 처리) 요청 건의
- 2014. 9. 25 경상북도 보건단체 해외 의료봉사 전개를 위한 사업 계획서 전달(경상북도 보건정책과)
- 2014. 12 경상북도의회 예산 승인 의결(3,000만원)
- 2015. 1. 9 캄보디아 수스아라 국회의원과 해외의료봉사 전개를 위한 간담회
- 2015. 1. 14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및 보건단체간 간담회 개최
- 2015. 3. 15~3. 18 캄보디아 사전 답사(회장, 단장, 사무처장)
- 2015. 3. 20 경상북도 보건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해외의료봉사 협조 요청

- 참여단체 : 경북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 간호사회 · 약사회
- 봉사단로고



■ 해외 의료봉사 주요 활동 내용

- 캄보디아 간달의 의료 소외 지역의 실질적 의료 및 영양제 지원
- 캄보디아 현지 보건당국 및 NGO단체(TYDA, CMVA)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 사업 전개, 의료장비 지원
- 현지 진료의사 의료인력 지원 교류 사업(MOU 체결)
- 학교 건강검진 및 예방 교육(프렉로카 초등학교)
- 다문화 가족 친정국가 방문 및 통역 업무 지원 등
- 한국어 전공학생의 통역봉사를 통한 한국문화와 의료체험

■ 해외 의료봉사 일정

구분	7.21(화)	7.22(수)	7.23(목)	7.24(금)	7.25(토)	7.26(일)
일정	출정식 인천출국	의료봉사	의료봉사	문화탐방	문화탐방 프놈펜출국	인천도착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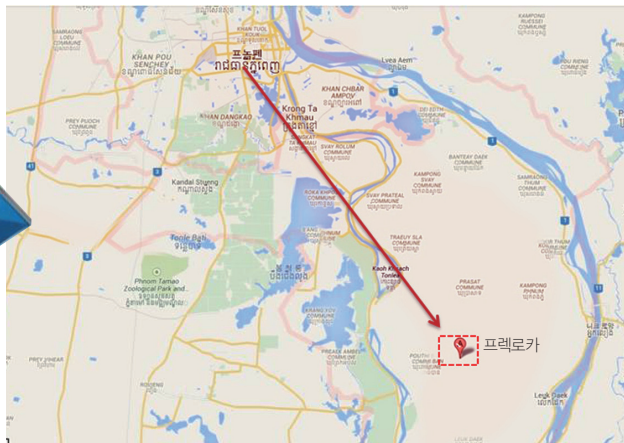
■ 출입국(항공) 일정

구분	일정	출발시간	소요시간
인천출국	7. 21(화)	인천 19:15, 프놈펜 22:55	5시간40분
프놈펜출국	7. 25(토)	프놈펜 23:55, 인천 (+1)07:10	5시간15분

Ⅲ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일반 개요

- 명 칭 :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Gyeongsangbuk-do Medical Volunteers)
- 슬로건 :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 (Our hearts and minds, for healthy Cambodia)

- 숙박장소 : 프놈펜 호텔(Phnom Penh Hotel)  
☎+855-(0)23-991-868 / No. 53, Monivong Boulevard, Sangkat Srah Chok P.O. Box 1131,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 진료장소 : 캄보디아 간달주 프렉로카 보건소  
Kandal (PREK ROKA Health center) CAMBODIA



■ 해외 의료봉사단 참여자

1)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72명)

- 의료인력 : 43명(의사7, 치과의사4, 한의사2, 약사5, 간호사15명)
- 지원인력 : 29명(행정4, 통역1, 방송2, 가족22)

구 분	전문과목	참가자 명단(괄호안은 가족 참여자)
의과 (17+11명)	내 과	김재왕, 박봉기(김득희), 장필식(장호철), 오희주(오재준)
	외 과	장유석, 유국선(유제연), 문상웅, 강만수(강태주)
	정신건강의학과	노봉근(노태경)
	신경외과	손성근
	마취통증의학과	김광인
	소아청소년과	윤경애, 권성경
	안 과	이우석
	이비인후과	민정기(김은단, 민현지, 민혜원)
	피부과	이석중(이어진)
영상의학과	정태균(정인영)	
치과(4+4명)	치 과	안영두(안중환), 이용권(이규진), 양성일(양수진), 함정해(채보근)
한의(2+1명)	한 의 과	박인수, 한영주(한혜령)
약사(5+2명)	약 사	한형국, 배은정(김관우, 김수비), 서웅, 이승령, 조문주
간호 (15+4명)	간호사	윤난숙, 배분희, 조영심, 이은주(조수아, 윤지형), 김영은, 김상희, 채송화
	심평원간호사	김재선, 강미경, 김해련, 정순자, 조숙향(황성우), 최혜영(이하은), 신정원, 유은정
행정(4명)	행정직원	박재영, 홍근연, 권순길, 김수진
통역(1명)	결혼이주여성	라칸하(박선미)
방송(2명)	안동MBC	태숙혜, 배경탁

2) 캄보디아 현지 참여자(74명)

- 의사 17명(OMVA), 치과의사 10명, 통역 25명(프놈펜대학 한국어과 학생)
- 한국 선교사(김철환 목사) 및 지원인력 9명
- 행정지원인력(김명철 캄보디아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 10명
- 현지진행가이드 3명(업무지원)

IV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활동 현황(결과)

1) 해외 의료봉사단 출정식 |

- 일 정 : 2015. 7. 21(화) 10:00~10:40, 경상북도청 강당
- 참석내빈

1) 봉사단원 : 김재왕 회장, 장유석 의료봉사단장, 의료봉사단원 등 50여명

2) 경상북도 : 이인선 경제부지사, 김치원 경북지방경찰청장, 이원경 보건정책과장

3) 보건단체 : 반응석 치과의사회장, 윤난숙 간호사회장, 한형국 약사회장

4) 대외내빈 : 추무진 의협회장, 임수흠 의협위원장, 정능수 의협감사, 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

5) 유관단체 : 현수환 ㈜동원약품 회장, 이종하 경북적십자사 사무처장, 이형심 심평원대구지원 심사부장

- 주요내용 : 개회식, 경과보고, 회장인사, 격려사, 퍼포먼스(결혼 이주여성 친정국가방문 항공권 전달), 꽃다발증정, 기념촬영 등

1) 해외 의료봉사활동 내용 |

1) 환자진료 내역

- 진료인원(결과)

구 분	인원수(%)	비 고
외래 환자수	1,837명(100)	(초등검진 200명포함)
7. 22(수)	929명(50.6)	
7. 23(목)	908명(49.4)	
성별	1,837명(100)	
남	787명(42.8)	
여	1,050명(57.2)	
연령(세)	1,837명(100)	
9 이하	478명(26.0)	
10-19	350명(19.0)	
20-29	132명( 7.2)	
30-39	137명( 7.5)	
40-49	166명( 9.0)	
50-59	222명(12.1)	
60-69	206명(11.2)	
70-79	112명( 6.1)	
80 이상	34명( 1.9)	
진료과별 진료 연인원	3,674명(100)	
내과	972명(26.5)	
외과 · 신경외과 · 통증의학과	854명(23.2)	
소아청소년과	423명(11.5)	
안과	397명(10.8)	
이비인후과	195명( 5.3)	
피부과	164명( 4.5)	
영상의학과	74명( 2.0)	
치과	454명(12.4)	
한 의 과	141명( 3.8)	
각종검사 및 수술		
위내시경검사	25건	
외과적수술	25건	
통증유발점주사(TP)	120건	

-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치과, 한의과(12개 진료과목)

- 진료내용 : 각 진료과별 외래진료, 위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외과적 수술, TPI시술, 침·뜸 시술, 환자투약 등

**2) 현지 의사·치과의사 및 학생에게 의료기술 전수**

- 7월 22(수)에는 의사 및 의대생 9명, 치과의사 및 학생 10명, 7월 23(목)에는 의사 및 의대생 8명, 치과의사 및 학생 10명에게 의료봉사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함

**3) 학교 건강검진 사업 전개**

- 캄보디아 간달주에 위치한 프렉로카 초등학교를 방문(2015. 7. 22)

-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과·외과·치과 검진과 손씻기 등의 예방, 위생교육을 병행하는 학교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함은 물론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은 진료장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약품 처방

- 기념품 전달(학생용 가방·색연필·밴드·치약칫솔 200개)

**4) 국내 연수교육 참가한 현지 의사와 협진 시스템 구축**

- 지난 제2회 의료봉사시 왕립 군의과학연구소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MOU 체결(2013.7.25)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키로 함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6개월간 연수교육(2014.7.28~2015.1.22)을 진행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받은 캄보디아 의사키 왓타낙 씨가 금번 해외 의료봉사시 내과 의료진과 함께 협진 시스템 구축으로 연수교육의 목표 달성

**5) 캄보디아 NGO 단체(TYDA, CMVA)와 MOU협약 체결**

- 협약체결식 : 2015. 7. 25(토) 16:00, 프놈펜호텔

- 협약단체

① 경상북도의회 TYDA(Samdach Techo Voluntary Youth Doctor Association)

② 경상북도보건단체의료봉사단 CMVA(Cambodia Medical Volunteer Association)

- 협약내용

- ① 두 단체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및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며 캄보디아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동 사업 추진
- ② 향후 원활한 의료서비스와 실질적 임상기술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
- ③ 캄보디아 현지 의사 1인을 추천받아 연수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천해 줄 것 등

- 협약식 참석자

① 우리나라측 : 김재왕 의사회장, 장유석 봉사단장, 한영국 약사회장, 윤난숙 간호사회장, 안영두 치과의사회 부회장, 한영주 한의사회 부회장, 심평원 김재선·강미경 실장 등 관계자

② 캄보디아측 : 훈마넷 TYDA이사장, 수스 야라 국회의원, 항 찬보헤레아크 의료봉사협회장, 행 소판하 의료봉사협회 부회장, 소우 시판나 TYDA 부회장 등 관계자

**6)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물품 및 의약품 기증**

- 캄보디아 NGO 단체(TYDA, CMVA)에 의료소모품과 내복약·피부연고·안과약품·주사수액제 등 의약품 기증(80종, \$5,000)

**7) 결혼이주여성 친정국가 보내기 사업 전개**

- 대한민국으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의 모국방문 지원 사업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의료봉사단 진료시 통역업무 담당

-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 라칸하 씨 (박선미, 28세, 2008년도 이주, 경산)

※ 친정국가 보내기 사업 현황

연도	대 상
2013년	• 커소피 씨(최혜진, 2007년도 이주), 상주 거주
2014년	• 커소피 씨(최혜진, 2007년도 이주), 상주 거주 • 마오데니 씨(박소희, 2006년도 이주), 경산 거주
2015년	• 라칸하 씨(박선미, 2008년도 이주), 경산 거주

**8) 통역봉사를 통한 한국문화와 의료체험**

- 프놈펜대학 한국어 전공학생의 통역봉사를 통한 한국문화와 의료체험 사업

**9) 경상북도 의료관광 홍보**

- 경상북도 신라천년 고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와 안동 하회마을, 문경새재, 영주 소수서원, 경주 양동마을 등 10선의 경북관광을 소개

- 경상북도의 우수한 의료와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함

**| 해외의료봉사단 해단식 |**

- 일 정 : 2015. 8. 19(수) 19:30, 호텔 인터불고 대구(만촌동)
- 참가인원 : 봉사단원 전원, 주요내빈(보건단체장) 등
- 해외의료봉사단 성과 발표 및 해단식

**V 캄보디아 주요 내빈 방문 및 간담회**

■ **TYDA(Samdach Techo Voluntary Youth Doctor Association)**

- H.E. Mr. Hun Manet,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 of TYDA(TYDA 이사장 및 캄보디아 훈센 총리 장남 3성 장군 훈마넷)
- Dr. Hang Chanvohreak, President of Cambodian Medical Volunteer Association(캄보디아 의료봉사자의사회 항 찬보흐레아크 회장)
- Dr. Heng Sophanha, Vice President of Cambodian Medical Volunteer Association(캄보디아 의료봉사의사회 헝 소판하 부회장)
- Mr. Sou Syphanna, Executive President of TYDA(TYDA 소우 시판나 부회장)

■ **H,E MP Mr. SUOS YARA**(Member of Parliament and Vice Chairman of Committee for Foreign Affai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수스아라 국회의원)

■ **IMHA(International Medical Humanity Association)**

- Lieutenant GENERAL, SOK MONY (Honorable President of IMHA)
- Dr. MAO HENG (Vice-President of IMHA)
- Assistant Medical, MAN CHAMROEUN (Advisor of IMH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전미호 관장**

**VI 해외의료봉사 주요 협찬 내용**

-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내복약 · 피부연고 · 수액주사제 46종, 의료물품 및 소모품, 1회용 밴드 등(3,000만원)
- **경상북도의회(회장 김재왕)**

**VIII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진행 로드맵**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후원기금모금	[Progress Bar]																																							
준비회의	[Progress Bar]																																							
전체회의	[Progress Bar]																																							
봉사단원접수	[Progress Bar]																																							
여행사준비	[Progress Bar]																																							
의약품접수	[Progress Bar]																																							
해외의료봉사	[Progress Bar]																																							
평가회의	[Progress Bar]																																							

- 제3회 해외의료봉사 소요경비 일체(3,000만원)
  - 결혼이주여성 친정국가 방문 경비
  - 선풍기(벽걸이, 스텐드형, 소형선풍기) 30대
  - 해외의료봉사 사전답사 및 행정경비 등
  - 쿨타올 150장
  -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반응석)** : 치약칫솔세트 1,500개(300만원)
  - **경상북도간호사회(회장 윤난숙)** : 스킨프 300개(100만원)
  - **더써덕(대표 노봉근)** : 내복약 36종(1,600만원)
  - **43개 제약회사** : 내복약 · 피부연고 · 안과약품 196종(4,230만원)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 후원금 100만원
  - **대구경북개발내과의사회(회장 백효종)** : 후원금 100만원
  - **(주)동원약품(회장 현수환)** : 후원금 100만원, 모기기피제 100개
  -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회장 강보영)** : 후원금 50만원
  - **대구은행** : 색연필 500개
  - **한국감염관리본부(영남지부장 구지용)** : 멸균소독약 및 손소독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손가방 200개, 반창고 1,000개
  - **지멘스코리아** : 초음파기기 1대
- ※ 캄보디아 총 지원금액 : \$ 70,000 상당 지원

**VII 해외의료봉사 기대효과**

-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300만 경북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단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충실
- 해외의료봉사의 know how를 다년간 축적
- 보건의료단체 위상 강화 및 해외의료봉사 참여 확대 제공
- 선진의료기술을 전달 및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을 위해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는 계기 마련

## 해외 의료봉사 공로 캄보디아 왕실 훈장(‘사하메트레이 훈장’) 수상



본회는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더불어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지식공유사업 등을 전개한 공로와 캄보디아의 의사를 직접 국내에 초청하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의학연수교육을 병행하여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캄보디아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캄보디아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인 ‘사하메트레이 훈장(The Royal Order of Sahametrei Medal)’을 받았다.

이 훈장은 캄보디아 국왕의 승인을 받아 수여되는 훈장으로, 캄보디아 왕실이나 정부와 특별한 우정을 기리는 목적으로 외국과의 협력관계 및 캄보디아 국민의 이익을 크게 증진시킨 사람에게 수여된다.

사하메트레이 왕실 훈장 수여식은 지난 10월 17일(토) 오전 9시, 호텔금오산에서 캄보디아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대신해 속안(Sok An) 관방장관 겸 부총리가 참석해 이루어 졌으며, 수스 야라 및 속 속칸 국회의원과 캄보디아 로얄 아카데미 관계자가 함께 배석하여 축하하였다.

경상북도의사회와 관련 보건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하여 캄보디아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는 물론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조기 질병검진인 학생건강검진 사업, 인도적 차원의 의료물품 및 기자재 지원 등을 추진해 왔으며, 캄보디아 현지 의사

를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교육을 진행하는 등 의료 선진국과 낙후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재왕 회장과 장유석 의료봉사단장, 정능수 직전회장은 ‘사하메트레이 훈장 모하세나장’을 수상하였으며, 의료봉사에 함께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준 약사회 한형국 회장, 간호사회 윤난숙 회장은 ‘사하메트레이 훈장 티프던장’을, 이우석 부회장과 문상용 총무이사, 치과의사회 안영두 부회장, 한의사회 한영주 부회장과 실질적 의료봉사를 위해 차질 없는 준비와 행정적 지원을 맡아 수고해 준 박재영 사무처장과 권순길 부장은 ‘사하메트레이 훈장 세나장’을 수상하였다.

김재왕 회장은 “해외의료봉사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의사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의사회 모든 회원들이 받는 캄보디아의 감사의 훈장이다”며 “앞으로도 캄보디아를 발판으로 삼아 전 세계에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우수한 의료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인 모두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몸을 사리지 않고 진료현장을 찾을 것이며, 모든 환자들에게 감사의 훈장을 받을 때까지 마음을 다잡고 채찍질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 제4회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

봉사기금 31,070,000원 모금, 대회 우승에 포항 김석주 회원

후원기금 회원당 1구좌씩 납부 협조

지난 9월 6일(일) 12시, 엠스클럽 의성C.C.에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제4회 경상북도 의사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본회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함은 물론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의료봉사기금을 마련하고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기 위해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본회 김재왕 회장과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을 비롯한 의협 정능수 감사, 한의사회 이재덕 회장, 신은식·최종두·이원기·변영우·정만진 고문 등 회원 128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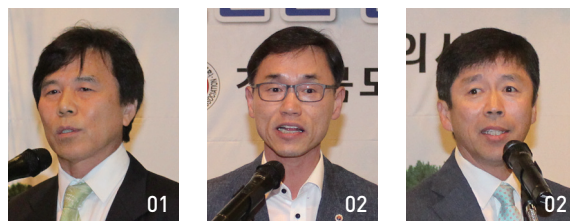


친선골프대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본회 김재왕 회장과 류성훈 준비위원장의 인사와 더불어 이우석 경기위원장은 “공정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규칙을 잘 지켜 화합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으며, 단체 기념촬영과 내빈들의 시타로 골프대회가 진행되었다.

참가한 회원들은 3개의 코스로 나뉘어 개인전은 신페리오 방식으로, 단체전은 4개 권역별 총타수 상위 5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고, 챔피언은 스트로크방식으로 상위 4명을 선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 개인전 우승은 김석주 회원(포항), 메달리스트는 황병욱 회원(경주), 준우승은 정연호 회원(구미), 3위는 이석근 회원(구미)이 차지하였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정세주 회원(김천)이 홀인원을, 도황 회원(경주)이 이글을 기록하는 행운을 안았다.



01 김재왕 회장의 인사  
02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이재덕 한의사 회장의 축사

단체전 우승은 남부권역이 차지하였으며, 황병욱(경주) · 김석주(포항) · 최경태(경산) · 김인환(영천) 회원이 챔피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시상식 후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과 참가 선물이 참석한 회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친선골프대회와 함께 진행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모금은 총 86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지난해보다 640여만 원이 늘어난 총 31,070,000원(연간)이 적립되었으며 특히 본회 김재왕 회장(500만 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고액기부를 하였다(후원 현황 참조).

03 개인전 우승에 김석주 회원(포항) 04 후원기금을 전달하는 김재왕 회장



### 제4회 경상북도의회사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 경기 결과

#### 개인전

- 우승 : 김석주 회원(포항, 김석주피부과의원)
- 메달리스트 : 황병욱 회원(경주, 황내과의원)
- 준우승 : 정연호 회원(구미, 인동cnk비노기과의원)
- 3위 : 이석근 회원(구미, 장쾌한연합내과의원)
- 다버디상 : 김규성 회원(안동,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다파상 : 김두표 회원(안동, 안동병원)
- 다보기상 : 방규만 회원(안동, 안동성소병원)
- 대파상 : 장유석 회원(경산, 장유석외과의원)
- 롱기스트 : 한형원 회원(포항, 한형원내과의원)
- 니어리스트 : 김광만 회원(포항, 지곡그린의원)
- 잉고상 : 최경태 회원(경산, 현대외과의원)
- 베스트 드레스상 : 이화진 회원(구미, 갑을구미병원)
- 행운상 : 김영주 회원(안동,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홀인원 : 정세주 회원(김천, 정세주내과의원)
- 이글상 : 도황 회원(경주, 경주마취통증의학과의원)

#### 권역별 단체전

- 1위(남부지구), 2위(서부지구), 3위(동부지구), 4위(북부지구)

#### 챔피언 결정전

- 황병욱(경주) · 김석주(포항) · 최경태(경산) · 김인환(영천) 회원

이 밖에도 참석한 회원들 모두 십시일반 동참함으로써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마련의 취지를 살리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또한 이날 장유석 의료봉사단장은 지난 7월 성공리에 개최한 제3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의 소식을 전하며,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손수 후원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 회원들이 있었기에 의사회 위상을 높였고 질 높은 의료봉사를 펼칠 수 있었다”며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김재왕 회장은 인사를 통해 “오늘 골프대회를 위해 경북 각지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이런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행사가 의료봉사기금 마련이라는 취지에 맞게 진행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의사회가 발전하고 회원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은 “비록 흐린 날씨였지만 원로 회원님께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젊은 회원들이 뒷받침하여 경북의사회가 발전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어 감사드린다”고 하였으며, “17년 만에 배출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의료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려되는 부분도 많으므로 우리 모두가 의협 회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도록 모두 파이팅하자”고 하였다.



05 챔피언 우승 : <좌부터> 김석주(포항) · 최경태(경산) · 황병욱(경주) · 김인환(영천) 회원  
 06 <좌부터> 메달리스트 황병욱 회원(경주), 준우승 정연호 회원(구미), 3위 이석근 회원(구미), 출인원 정세주 회원(김천), 이글상 도황 회원(경주)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 후원 현황 (1구좌 10,000원)

## 감/사/인/사/드/립/니/다

2015. 9. 6 후원기금 납부자

### 일시납

#### ■ 500구좌

- 김재왕(안동, 김재왕내과의원)

#### ■ 200구좌

- 김광만(포항, 지곡그린의원)

#### ■ 100구좌

- 김봉재(구미, 강남병원)
- 안근호(안동, 아주안재요양병원)
- 장유석(경산, 장유석외과의원)
- 정세주(김천, 정세주내과의원)
- 경산시의사회(회장 장재혁)

#### ■ 60구좌

- 차인숙(안동, 차이비인후과의원)

#### ■ 50구좌

- 김광인(안동, 안동제통의원)
- 김종영(경산,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 노진우(영주, 참사랑외과의원)
- 도 황(경주, 경주마취통증의학과의원)
- 류성훈(구미, 구미항외과의원)
- 방종경(성주, 덕산의원)
- 이우석(포항, 영동안과의원)
- 장재혁(경산, 제일정형외과의원)
- 정선희(상주, 정소아청소년과의원)
-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이재덕)

#### ■ 30구좌

- 배창표(김천, 현대정형외과의원)
- 채한수(경산, 채한수이비인후과의원)
- 최경수(안동, 최비노기과의원)
- 황석순(포항, 황석순내과의원)
- 영천시의사회(회장 김인정)
- 경상북도약사회(회장 한형국)
- 경상북도치과사회(회장 반응석)
-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박성민)

#### ■ 20구좌

- 권준영(안동, 권내과의원)
- 서의태(안동, 안동제일안과의원)
- 장필식(예천, 경북의원)
- 영주시의사회(회장 우대영)
- 포항시의사회(회장 이우석)

#### ■ 12구좌

- 신은식(포항, 신정형외과의원)
- 이상호(의성, 대신의원)

#### ■ 10구좌

- 강래균(영덕, 강구외과의원)
- 강혁주(구미, 강내과의원)
- 구길우(안동, 김재왕내과의원)
- 구본환(영주, 구본환내과의원)
- 김교성(영주, 김내과의원)
- 김대영(안동, 김대영비뇨기과의원)
- 김두표(안동, 안동병원)
- 김석주(포항, 김석주피부과의원)
- 김영주(안동,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김종홍(안동, 안동성소병원)
- 김하균(칠곡, 석적중앙의원)
- 김효윤(안동, 안동병원)
- 박봉기(문경, 박내과의원)
- 박용준(청도, 마디연합정형외과의원)
- 박우진(문경, 중앙가정의학과의원)
- 박정권(칠곡, 박정권소아청소년과의원)
- 변영우(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서영배(구미, 강심내과의원)
- 서익제(영주, 영주기독병원)
- 서창수(영덕, 서창수외과의원)
- 신승호(포항, 신승호정형외과의원)
- 신현수(안동, 복주요양병원)
- 안재현(포항, 안재현의원)
- 이동석(경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 이영현(칠곡, 칠곡가톨릭피부과의원)
- 이영희(상주, 이영희내과의원)
- 이우세(포항, 대한정형외과의원)
- 이원기(포항, 이원기외과의원)
- 이인태(포항, 기계의원)
- 이정일(영주, 이정일산부인과의원)
- 이춘식(경주, 경주내과의원)
- 이현철(포항, 이현철의원)
- 이형철(구미, 선산제일병원)
- 이홍우(경주, 서울내과의원)
- 임영미(구미, 임영미산부인과의원)
- 임지훈(경주, 서울내과의원)
- 임판주(칠곡, 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
- 장상섭(포항, 장상섭신경과의원)
- 장완섭(안동, 장피부과의원)
- 전우성(구미, 우성비뇨기과의원)

- 정흥채(경주, 청하요양병원 노서점)
- 조문성(경주, 현대병원)
- 지성구(구미, 경북외과의원)
- 최유근(안동, 최유근안과의원)
- 최중두(안동, 최정형외과의원)
- 최종호(포항, 최종호재활의학과의원)
- 최현욱(안동, 동산정형외과의원)
- 최현곤(포항, 탑연합비뇨기과의원)
- 허찬욱(영주, 허찬욱이비인후과의원)
- 황병욱(경주, 황내과의원)

#### ■ 1구좌

- 방규만(안동, 안동성소병원)
- 손창우(안동, 안동성소병원)
- 주역식(안동, 안동성소병원)

### 자동이체(매월)

#### ■ 10구좌

- 이국희(의성, 동산연합의원)
- 정능수(의성, 동산연합의원)

#### ■ 5구좌

- 최영환(안동, 최영환내과의원)
- 고령군의회(회장 백두헌)

#### ■ 3구좌

- 김원기(상주, 김원기신경외과의원)
- 김찬중(칠곡, 우리가정의학과의원)
- 이재흠(의성, 경북외과의원)

#### ■ 2구좌

- 이건중(의성,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 정만진(청송, 경북북부제3교도소부속의원)

#### ■ 1구좌

- 김우석(포항, 오거리사랑요양병원)
- 김일환(의성, 김일환내과의원)
- 서보균(포항, 포항교도소부속의원)
- 성승모(포항, 시티요양병원)
- 신승호(포항, 신승호정형외과의원)
- 신홍일(안동,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이우석(포항, 영동안과의원)
- 정세주(김천, 정세주내과의원)
- 정태호(포항, (주)포스코부속의원)
- 지성구(구미, 경북외과의원)
- 최계정(김천, 동산연합의원)
- 한형원(포항, 한형원내과의원)

## 금오산 칼다봉 산행으로 회원 친목 및 건강증진 도모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된 2015년도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11일(일) 오전 9시 30분, 구미 금오산 칼다봉과 대혜폭포를 산행하는 코스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회원 및 가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인사와 등산로 안내, 몸풀기 체조가 있었으며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산행이 진행되었다.

등반대회는 두개의 코스로 나누어 A코스는 금오산 공영주차장을 출발하여 금오산 칼다봉을 회귀하여 하산하는 코스로, B코스는 금오산 공영주차장에서 대혜폭포를 회귀하여 금오지 둘레길을 걷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등반을 마친 회원 및 가족들은 인근 금오산식당에 마련된 뒤풀이 행사에서 순두부와 도토리묵, 파전과 막걸리로 피로를 풀고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뒤풀이 행사는 채한수 기획이사의 사회로 내빈소개, 개회



인사, 건배제의,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회원 및 가족들은 등반의 피로를 풀고 화합을 도모하였다.

또한 이날 참석한 회원과 가족에게 본회에서는 순흥기지떡과 기념타올(회장 김재왕)을, 구미시의사회(회장 전우성)에서는 고구마를 선물로 증정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과 경주, 구미, 경산 등 많은 지역에서 회원과 가족들이 참가하여 상호 간 친목을 다지며 건강을 챙기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 회무단신



###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 위한 윤리위원 활동 전개

지난 8월 18일(화) 오후 7시 30분, 사랑채식당에서 김재왕 회장과 새로이 구성된 정능수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위촉장이 수여된 이날의 상견 모임에서 김재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리위원으로 수락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좋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하였다.

이어 새로이 위촉된 정능수 윤리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윤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 같아 책임감이 크다”며, “회원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회원 스스로 자정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어 정능수 위원장 주재로 본회와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마쳤다.

본회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57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경상북도지부 윤리위원회로서 회원으로 하여금 의사의 윤리를 준수함은 물론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있으며,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3년이다.

#### 본회 윤리위원회 명단

- 위 원 장 : 정능수(의성, 동산연합의원)
- 부위원장 : 권오일(안동, 중앙산부인과의원)
- 위 원 : 조총래(구미, 한일산부인과의원), 방종경(성주, 덕산의원),  
한형원(포항, 한형원내과의원), 황병욱(경주, 황내과의원),  
박일영(경산, 경산산부인과의원), 노진우(영주, 참사랑외과의원)
- 간 사 : 장필식(법제이사, 예천 경북의원)

### ‘메르스 걱정없이 안전하게 진료 받으셔도 됩니다’, 의료기관 격려 방문

지난 6월 23일(화), 의협 추무진 회장과 본회 김재왕 회장은 경주지역을 방문하여 그간 메르스의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준 의료기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경북지역에서 메르스 환자의 치료를 맡아 한명의 추가 발생자나 사망자 없이 메르스 환자를 완치시킨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이동석 병원장과 경주 지역 경유 의료기관 3곳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회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보내고, 이들 의료기관에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불법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하반기 운영회의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하반기 운영회의가 지난 8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행복한날

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운영회의는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김성목 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참석자 개별 소개와 주요경과보고,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의사항에서는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해 일간지 2곳을 통해 홍보하기로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일간지를 접하는 월요일(8/31)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언론사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차기 위원장은 4개 단체에서 윤번제로 선출 되는데 2016년도 회기는 순서에 의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재준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고 차기 전반기 회의는 2016년 3월 7일(월)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본 운영위원회에는 본회와 대구시의사회,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대구경북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 심사평가원대구지원 1일 명예심사위원장 활동

지난 9월 2일(수) 오후 3시, 본회 김재왕 회장과 장유석·이우석 부회장, 배창표·김우석 보험이사가 지역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1일 명예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날 명예심사위원은 심평원의 심사과정 시연과 요양급여서비스 정보와 맞춤형 심사정보 제공 등에 대해 직접 살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현지조사, 심사지침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실�크로드 경주 2015’ 문화 엑스포 개막식 참석

‘유라시아 문화특급’을 주제로 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실�크로드 경주 2015’가 지난 8월 21일(금) 오후 3시, 개막식을 갖고 10월 18일(일)까지 59일간의 대장정으로 열렸다.

경주엑스포공원 백결공연장에서 열린 개막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지사, 본회 김재왕 회장을 비롯하여 해외 축하 사절, 국내외 인사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크로드 경주 홍보영상 상영, 개막선언, 김관용 도지사의 개막사, 황교안 총리의 축하 등으로 진행됐다.

본회는 성공적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위해 입장권 300매(300만원)를 사전에 구매하여 시군의 사회와 중앙회, 시도의회 등에 배부하고 많은 관람을 요청하였다.

〈사진제공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 보훈가족 무료초음파 검진사업 협약체결



본회와 대구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 및 국가보훈을 통한 국민통합을 선도하고자 지난 6월 29일(월) 오후 1시 30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체결식에 본회에서는 김재왕 회장과 이동석 부회장, 김우석 보험이사, 대구지방보훈청에서는 오진영 청장과 김장훈 총무과장, 우진수 복지과장, 보훈복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맺고 경북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협약서의 중점내용으로는 대구지방보훈청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과 홍보 등 행정지원을, 본회는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경동맥 및 복부 초음파 검진(연간 100명 내외)을 진행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 교환과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금번 초음파 검진사업에 도내에서는 39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안전점검 캠페인 참석



본회 김재왕 회장은 지난 9월 17일(목) 오전 11시, 제234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 하였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대형상가, 판매시설, 여객시설, 공연시설, 유람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방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행사에서 안동 구(舊)시장 내 화재 취약 상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즐겁고 안전한 추석보내기 가두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이 날 캠페인에는 허동찬 경북도 도민안전실장, 정창진 안동부시장, 김재왕 본회 회장,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상인 등 250여명이 참여해 시장 내 상가 밀집지

## 본회 대외 고문단(법률·세무·노무) 위촉

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외 고문 위촉식이 지난 9월 23일(수) 오후 7시, 동보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위촉식에는 본회에서 김재왕 회장과 장유석 부회장, 문상웅 총무이사가, 대외고문으로 유능중 고문변호사와 백재환 고문세무사, 장인호 고문노무사가 참석하여 위촉패 전달과 함께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외 고문을 맡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또한 참석한 대외고문들도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애기를 들어 잘 알고 있으며, 힘 닿는데 까지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며 고문으로 위촉된 대해 감사를 표했다.



### 대외 고문 신규 위촉

- 고문변호사 : 이수환 변호사(포항, 법무법인 청우)  
곽정환 변호사(경주, 곽정환변호사사무소)  
권기준 변호사(안동, 권기준변호사사무소)  
유능중 변호사(구미, 법무법인 유능)
- 고문세무사 : 백재환 세무사(대구, 세무법인 누리)
- 고문노무사 : 장인호 노무사(대구, 노무법인 남경)

## 2015년 메르스 확산방지 유공자 기관표창



본회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신속한 대처와 효과적인 관리로 감염 확산 방지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도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8월 4일(화) 오전 11시, 경북지사로부터 단체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날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이루어진 수여식에서 본회를 비롯한 경상북도약사회, 포항시북구·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보건소 7곳이 기관표창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김천의료원·안동의료원 관계자 5명이 개인표창을 수여받았다.

김관용 도지사는 “그간 메르스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해 준 보건의료단체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며, 금번 사태를 계기로 한층 더 개선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하였다.

## 김광림 국회의원과 의료현안 간담회



본회와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안동)은 지난 9월 25일(금) 오후 4시 30분, 김재왕내과의원에서 의료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재왕 회장과 김광인 부의장, 최경수 안동회장, 문상용 총무이사과 김광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의료영리화,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 한국의 의류수가 등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해외 의료봉사에 대한 의견 교환



지난 9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경주 이조한정식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영석 지원본부장 및 캄보디아 홍보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본회 김재왕 회장과 도황·이동석 부회장이 참석하여 그간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에서 실질적 지원을 해준 이영석 지원본부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향후 의료봉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에서 캄보디아 국가를 홍보하기 위해 파견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57호 의사회보 발간 논의



었다. 또한 기획특집 시리즈로 최근 의료현안인 '원격의료'를 첫 번째 주제로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색다른 취미를 가진 회원을 발굴·취재한 '일탈을 찾아서' 코너를 시리즈로 연재하기로 하였다.

지난 8월 31일(월) 오후 7시, 안동 부속에서 제57호 경북의사회보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편집위원회는 김재왕 회장을 비롯한 노진우 위원장, 장필식·권준영·서의태 위원이 참석하여 제57호 의사회보 발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지는 위가을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표지를 구성하고 특별기고와 회원문예, 해외의료봉사 특집 원고 등을 청탁하기로 하였으며, 본회 회무소식, 공지사항, 회원동정, 분회 및 병원소식 등으로 꾸미기로 하

## 2015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안내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 |   |   |
|---|---|
| <p>1) 신고대상 : 2012년도 4월 29일 이전 면허취득자 중 미신고자, 면허취득 후 3년이 도래한 자, 면허신고 후 3년이 도래한 자</p> <p>2) 신고기간 : 해당 신고년도 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완료</p> <p>3) 신고방법 : 홈페이지(<a href="http://www.igbma.or.kr">www.igbma.or.kr</a>) 로그인(미가입 회원은 가입 후 정회원 승급 후 신고) <b>클릭</b></p> <p><b>'KMA면허신고센터'배너 클릭</b> <b>클릭</b> 절차를 따라 신고</p> | <p>4) 개인 연수교육 이수내역 및 평점 확인방법</p> <p>- KMA 교육센터(<a href="http://edu.kma.org">http://edu.kma.org</a>) <b>클릭</b></p> <p>[마이페이지] <b>클릭</b> [연수 교육 이수내역확인]</p> <p>- 매년 8평점 이상씩 3년간 총 24평점 이수 완료하여야 함</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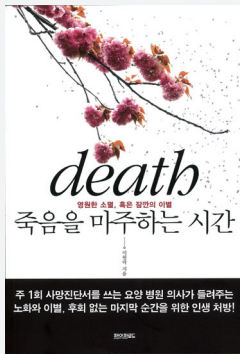
※ 본인인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며, 아닐 경우 서면신고서를 개별 작성하여 대한의사회로 우편 발송

###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5. 4. 1	경상북도의회 제43대 집행부 회무시작	2015. 10. 24	전국 의사대표자 결기대회
2015. 4. 7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5. 10. 29	제57호 경북의사회보 발간
2015. 4. 26	대한의사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2015. 11. 1	전국 의사 테니스대회
2015. 5. 1	2015년도 회원정기신고 실시	2015. 11. 1	201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2015. 5. 16~17	제37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춘계종합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2015. 11. 8	제3회 경상북도 보건단체 골프대회
2015. 6. 10	제56호 경북의사회보 발간	2015. 12.	시군의사회와 연계한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5. 7. 21~26	경상북도 보건단체 해외의료봉사(캄보디아 프놈펜)	2016. 1. 15	제58호 경북의사회보 발간
2015. 9. 6	제4회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마련 골프대회	2016. 2. 27	2015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회장회의
2015. 10. 11	2015년도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16. 3. 8	2015년도 회무감사
2015. 10. 17~18	제30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전북)	2016. 3. 26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 이원락 회원,

##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 출간



이원락 회원(경주, 청하요양병원)은 지난 9월 11일,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요양 병원에 근무하면서 사람의 노화와 죽음, 그리고 늙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 등을 책 한 권으로 출간하였다.

제1장에는 죽음과 노인들의 문제를 다루었고, 제2장에는 노화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는 그들이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살벌했던가에 대한 것, 제4장에는 늙어가면서 느낀 것들의 소회를 적었다.

이원락 회원은 2010년 수필 문단에 등단한 후, 한국 의사수필가협회나 대구 시문인협회 등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특히 경북고등학교 총동창회에 ‘경맥문인협회’를 창설하여 ‘경맥문학’이라는 동창회지를 창간부터 제4편까지 발간하였고, 지금은 경북고등학교 총동창회 경맥 예술인 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구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청하요양병원 용강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 전경홍 회원, 한국 의사수필가협회 제5회 심포지엄 및 한국 의학도 수필 공모전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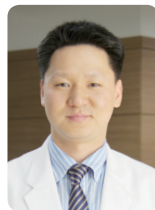
전경홍 회원(문경, 동산가정의학과의원)은 지난 6월 20일 제4대 한국 의사수필가협회장으로 선출되어 9월 12일 의협회관에서 ‘한국 의사수필가협회 제5회 심포지엄 및 한국 의학도 수필 공모전’을 열었다. 이번 수필 공모전 영예의 대상(대한의사협회장)에는 장찬웅(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2년) 학생의 작품 ‘외할아버지의 연기(緣起)’가 선정되었다.

## 정능수 직전회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정능수 직전회장(의성, 동산연합의원)은 지난 7월 2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었다.

## 윤성용 교수, 구미시 유공시민 표창



윤성용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구미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시민 표창을 받았다.

윤 교수는 구미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참여형 개선기법(PAOT)를 적용한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통해 구미시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로 발전을 이끌었다. 구미시 건강도시 브랜드 ‘건강한 일터 나비(NAVI)인증제’ 추진실무위원으로 참여 해온 윤 교수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근로자들이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通하는 혈관 참여형 개선기법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도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 개원을 축하합니다 | 2015년 6월 ~ 10월 까지 |

## 포항시

권용채 \_ **구룡포제통마취통증의학과**의원  
(3793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76-8  
T. (054)276-1911 / F. (054)276-8281

권효재 \_ **속편한권내과의원**  
(37883)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79  
T. (054)293-9394 / F. (054)293-9395

김희경 \_ **참사랑연합의원**  
(37768) 포항시 남구 상공로 43 2층  
T. (054)282-2233 / F. (054)282-2236

성현정 \_ **수성미여성의원**  
(37685) 포항시 남구 시청로 7  
좋은의사들빌딩9층  
T. (054)273-8590 / F. (054)273-8591

이경근 \_ **브이투이경외과의원**  
(37756)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 6층  
T. (054)726-0006 / F. (054)726-0005

장상섭 \_ **장상섭신경과의원**  
(37723) 포항시 북구 대신로 48 2층  
T. (054)614-0070 / F. (054)614-0080

조성희 \_ **달소아청소년과의원**  
(37572)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7  
T. (054)253-7576 / F. (054)255-7576

최성진 \_ **최성진내과의원**  
(37721) 포항시 북구 중앙로 438  
T. (054)255-3252 / F. (054)254-3252

**유성요양병원**  
(37576)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35-78  
T. (054)251-0011 / F. (054)254-2211

## 경주시

류기형 \_ **류재활의학과의원**  
(38146) 경주시 원화로 277 3층  
T. (054)700-9331 / F. (054)070-8240-5583

박정배 \_ **경주속시원내과의원**  
(38156) 경주시 금성로 287 301호  
T. (054)775-2400 / F. (054)775-2402\

소병훈 \_ **서울의원**  
(38186) 경주시 산내면 단석로 684  
T. (054)751-8286 / F. (054)0303-3441-8286

이병용 \_ **영남마취통증의학과**의원  
(38146) 경주시 화랑로 135 성동시장형상가 203호  
T. (054)776-7582 / F. (054)776-1141

## 김천시

고원혁 \_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39608) 김천시 김천로 66 우리은행2층  
T. (054)434-4575 / F. (054)434-4576

김영원 · 심의재 \_ **드림비뇨기과의원**  
(39547) 김천시 시청로 79 케이투빌딩3층  
T. (054)432-6900 / F. (054)439-5511

## 안동시

김성욱 \_ **경대편한내과의원**  
(36660) 안동시 경북대로 399 5층  
T. (054)852-2233 / F. (054)852-2238

김주원 \_ **길안온누리의원**  
(36735) 안동시 길안면 천지길 62-16  
T. (054)823-9922 / F. (054)823-9921

양한홍 \_ **수외과의원**  
(36658) 안동시 경북대로 432 2층  
T. (054)857-0697 / F. (054)857-0698

우병욱 \_ **안동백세의원**  
(36698) 안동시 제비원로 128 2층  
T. (054)857-9401 / F. (054)857-9402

## 구미시

김연백 \_ **중앙마취통증의학과**의원  
(39225) 구미시 구미중앙로 115 2층  
T. (054)456-3663 / F. (054)451-2002

김지훈 \_ **구미김지훈신경과의원**  
(39294) 구미시 신시로 67 우리M타워4층  
T. (054)451-7575 / F. (054)4451-7574

이호준 \_ **현대마취통증의학과**의원  
(39221) 구미시 구미중앙로 61-6 현대유통2층  
T. (054)454-6088 / F. (054)454-6087

정재훈 \_ **명연합신경과의원**  
(39221) 구미시 구미중앙로 59  
T. (054)458-7722 / F. (054)070-7500-3828

**구미천사요양병원**  
(39141) 구미시 고아읍 이레로 46  
T. (054)451-5000 / F. (054)451-5009'

## 영천시

김민한 \_ **상쾌하이비인후과의원**  
(38859) 영천시 호국로 95 2층  
T. (054)331-1119 / F. (054)331-1116

## 상주시

강기영 \_ **강의원**  
(37213) 상주시 왕산로 168 2층  
T. (054)532-7580 / F. (054)533-7581

김영중 \_ **김앤김연합정형외과의원**  
(37184) 상주시 삼백로 88 무양다미아상가 301호  
T. (054)531-2175 / F. (054)531-2174

김정용 \_ **모동의원**  
(37271) 상주시 모동면 용호3길 6  
T. (054)532-0051 / F. (054)532-0047

박근홍 \_ **사랑연합의원**  
(37214) 상주시 왕산로 64  
T. (054)536-0200 / F. (054)535-0201

## 문경시

유인호 \_ **연세안심프롤로의원**  
(36981) 문경시 모전로 61  
T. (054)554-2057 / F. (054)554-2058

## 경산시

김소연 \_ **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38654) 경산시 대학로 63 킴스메디빌2층  
T. (053)801-8275 / F. (053)801-8276

박창근 \_ **외촌의원**  
(38412) 경산시 와촌면 금송 로 409 2층  
T. (053)853-3390 / F. (053)853-3391

변승득 \_ **척재활의학과의원**  
(38628) 경산시 중앙로 76 3층  
T. (053)811-9382 / F. (053)811-9381

이우현 \_ **경산혜인내과의원**  
(38685) 경산시 강변서로 141  
T. (053)817-2455 / F. (053)817-2450

최경업 \_ **경산 으뜸정형외과의원**  
(38536)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388 ST타워  
T. (053)812-8383 / F. (053)812-8384

## 청도군

**감꽃요양병원**  
(38300) 청도군 각북면 헬티로 1229  
T. (054)371-7770 / F. (054)371-1285

## 분회 및 병원소식

### 포항시의사회

#### 경북동부권역 학술대회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이우석)는 지난 9월 17일(목) 오후 7시, 경상북도포항의료원 2층 강당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동부권역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배뇨장애의 약물치료에 대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권태균 교수, 임상에서 놓치기 쉬운 흉부엑스선 사진의 이상 소견에 대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경민 교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김철수 차장의 강의를 있었으며, 학술대회 이후 포항시의사회 합동 반모임을 개최하였다.

#### 제8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지난 6월 28일(일) 12시 20분 오션뷰컨트리클럽에서 제8회 포항시의사회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이우석 회장, 준우승은 송재경 회원, 3위는 이우진 회원, 메달리스트는 최종호 회원이 차지 하였다.

### 안동시의사회

#### 제2차 이사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최경수)는 지난 9월 8일(화) 저녁 7시, 예미정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최경수 회장을 비롯한 최종두·최유근·신현수 고문과 이원경 경상북도안동의료원 비상경영대책위원장(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등 임원 23명이 참석하여 의사회 주요 회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구미시의사회

#### 전반기 총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전우성)는 9월 23일(수) 19시 30분 구미 센츨리호텔에서 전반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우성 회장의 인사에 이어 전반기 주요 회무보고와 전임 회장 및 기획·재무이사를 치하하는 메달 증정이 있었다. 이어 후반기 각종 주요 행사계획 공지와 의료현안 논의를 끝으로 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경산시의사회

#### 회원단합위한 문화행사(영화관람)



경산시의사회(회장 장재혁)는 지난 8월 18일(화) 회원단합을 위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대구스타디움CGV에서 미션임파서블5 영화를 관람 하였다.

이날 문화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 경산시 보건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친환경병원 만들기' 시작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병원장 박래경)은 지난 8월 3일(월) 보건의료분야의 '녹색병원' 선도를 선언하고, '친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녹색경영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행복기여'를 녹색경영 비전으로 제시하고, '마인드 제고를 통한 저탄소 의료문화 실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의료기관 구축', '그린화로 친환경 의료서비스 실천' 등 3대 녹색경영 전략으로 '친환경병원 만들기' 실천에 나설 방침이며,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생활 실천 등 세부과제를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 원격의료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거리를 ""핵심적 요소로 하여, 원거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문서 등 정보에 기반한 개입, 진단 및 처방을 결정하고 권고하는 의료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telemedicine, e-health, u-health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고전적인 telemedicine에 비해 e-health란 용어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인터넷 및 정보기술과 보건의료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용어로서 병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시공간적 한계를 전자공간으로 확대하여 환자의 임상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교환된 의학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사용되는 용어인 u-health는 컴퓨터, 센서, 유무선 네트워크 등의 IT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가상공간에서 환자가 소지할 수 있는 소형화된 장치를 통해서 환자의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합, 전송·분석, 진단하는 의료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 원격의료의 형태구분

형 태	행 위	설 명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원격자문 (의료상담+자문)	원격지 의사가 멀리 떨어진 의료인의 의료 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자문 … 원격방문간호(방문간호사), 원격응급의료(응급구조사), 원격자문(의사) 등으로 구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원격 모니터링 (건강상태 파악+해석+상담·교육)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 교육 등 관리 … 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혈압, 혈당 등을 모니터링
	원격진료 (질병 진단+처방)	의료인이 대면진료를 대체하여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전 발행 등 진료

현재 의료법상 허용 범위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행위인 원격자문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 (정부 추진안)

의료기관종류	동네의원만 가능	병의원 가능	초·재진 여부
대상환자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수술 퇴원 후 관리 필요한자	재진
	노인 및 장애인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초·재진
	도서 및 벽지 등의 주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원격의료 정책 경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의료법 개정 추진 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여 의료 복지를 실현한다. 둘째, 노인 만성질환자를 원격 관리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 셋째 의료장비, IT업체 등 연관 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사실 원격의료는 2000년부터 정부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부터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앞장서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까지 그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현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원격의료 추진 보고를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언급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 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 의료법 개정안이 2013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되었으며 2014년 3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 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하여 관련 의료전문단체들의 반대로 6개월간 시범사업 후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4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의협은 의료계 참여와 동의 없는 정부 단독 시범사업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시범사업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결국 의협을 배제한 채 독자적인 시범사업을 2014년 9월 24일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은 2015년 3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총 11개 기관이 참여 하였고 보건소 5개(서울 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지역)와 민간 의료기관 6개로 구성되었다.

시범 사업은 보건 산업 진흥원 주관 프로젝트와 가톨릭대학 주관 프로젝트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비스 만족도와 원격 모니터링 이용 의향, 만성질환 관리 적합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초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유용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과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조사 결과 분석 상 원격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환자 만족도, 복약 순응도, 만성 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외 시범사업 평가에서 비용-효과 분석이 빠져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평가가 없는 점도 지적 되었으며 의협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해킹이나 개인 정보유출 등이 손쉬웠으며 결과물을 변조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복합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공공시설·도서벽지·요양시설 등 의료 취약지 대상 원격진료,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사실 이전에 산업자원부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K 텔레콤(주) 컨소시엄과 LG 전자(주) 컨소시엄을 통해 대기업들과 대형병원들이 참여하여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다. 사업은 당뇨와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스마트케어 센터간 연계를 통해 전화 및 화상, 헬스 리포트 등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35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만성질환자 3,447명이 참여하였다.

산자부는 이 스마트케어 사업을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원격의료서비스가 향후 만성질환 관리방안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분석 상 총 4편의 결과 보고서 중 3편에서 원격의료의 우월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성에 있어서도 산업자원부는 상담사 1명당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 후 검증 과정에서 1명당 67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에서는 전체적인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를 드러내지 않고 일부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원격진료의 효과만을 홍보하는 결과를 발표하여 제도의 효과성만을 강조, 법 개정엔 힘을 실어 주려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는 원격의료를 의료 자체로 보기 보다는 산업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 ■ 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원격의료는 이를 시행할 경우 아직 의학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여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격의료의 장점으로 기존 보건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였던 환자들은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으나 원격의료가 보편화되면 어떤 치료와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난다, 개개인의 진료기록과 투약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개인별로 최적화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오진이나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낮은 재진 환자 중심의 원격 진료는 의료 소외 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의료 데이터 공유로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있어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의료가 1차 의료기관에서만 시행될 경우 동네 의원이 지역 밀착 진료의 중심으로 거듭 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했을 경우 환자나 의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시민 단체까지 원격의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원격의료시 환자들이 친숙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 환자가 측정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원격 진료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 중 시진(일부 청진)만이 가능해 단순 화상 채팅식 진료를 할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원격의료 대상자인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혈당과 혈압에 대한 데이터 전송과 사진만으로 원격 진료를 할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게 되어 만성질환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다

또한 의료 행위는 환자의 편익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 2. 일차의료 약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정부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를 담당할 동네 의원들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대형병원으로 확대 시에는 이 병원들이 우수한 의료진, 장비 등을 내세워 퇴원 환자들을 지속 관리하거나 더 나아가 외래 환자 유치에 나설 경우 일차의료는 무너지고 의료전달체계는 무력화될 것이다. 이럴 경우 결국 동네의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의료 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3. 개인 의료정보 등 관련 자료 보안 문제

원격진료가 실시된다면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제3자에 의해 관리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약학정보원 등에서 전체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4,400만 명의 개인정보 및 질병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의료정보유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이다. 이를 테면 신체적 특징, 과거 및 현재의 질병, 투약 내역, 가족력, 생활 습관까지 포함되어 있어 유출시 다른 정보에 비해 훨씬 정보 주체가 받게 되는 피해가 크게 될 것이다. 또한 주소, 전화번호,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는 한시적인 정보이나 의료정보는 신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영구적인 정보에 해당하여 유출에 대한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

2013년 미국 신용 도용 범죄 정보센터 보고서에서도 노출된 정보의 데이터 침해 건수 중 43.8%가 보건 의료 정보로 해커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암시장에서도 신용카드 번호는 인당 1달러보다 못한 가격에 유통되나 의료기록은 환자 당 10달러까지도 거래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기기마저 해킹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회계감사원에서는 심박조율기나 인슐린 펌프, 제세동기 등 신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가 해킹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보안상 취약을 이유로 호스피라(Hospira)의 심박 약물 주입 펌프(Symbig infusion System)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 4. 원격의료 비용 부담의 문제

정부에서는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 부담이 적다고 하나, 여러 하드웨어 장비들(모니터링 기기, 생체신호 측정 단말기)과 각종 프로그램 설치에 따르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며 특히 유무선 통신비용, 관리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또 장비에 익숙해질 경우 오히려 더 의료 서비스를 과잉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의료비 증가의 우려가 있다. 산업자원부의 스마트케어 사업보고서를 보건 의료단체연합에서 분석한바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받기 위해 구매해야 하는 통신 및 의료 계측 장비는 대략 100~150만 원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 정도 금액의 진료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라면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 5.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우리의 의료 환경은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등(영토가 광활하여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비해 국토가 넓지 않고,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도시에는 병의원들이 즐비하다. 더구나 의료비가 저렴한 최적의 대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시적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의 당위성에는 큰 문제가 있다. 또한 대면진료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격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 ■ 맺음말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들은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속속 개발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와 협업해 헬스케어 기술을 확대, 진화시키고 있다. IBM의 경우 ‘왓슨 헬스’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2,000여명의 의사, 연구원, 보험업체 관계자 등과 협력해 개인에게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람의 생체신호를 측정, 분석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발에 향후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헬스 IT 계획, u-health 선진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올 초에는 의료기기와 연동 가능한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승인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원격의료를 골자로 한 ‘디지털 헬스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바일 기기 및 온라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부족한 의료진과 병상수를 해결한다는 방침이 담긴 로드맵을 공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대처해야 할 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재구성하고 있는 IT 기술과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바탕으로 health care 시장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이 u-health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려고 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u-health care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언젠가 미래에는 u-health care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가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의 주체는 병원과 의사인 만큼 원격의료 사업에서도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료계는 미래전략팀을 만들고 미래에 부상하는 기술이나 다양한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역량을 키워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첫째, 보건의료인이 없는 도서, 벽지 주민을 위해 제한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활용을 고려 할 수 있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서 원격모니터링의 활용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대면진료 시 진단과 처방의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의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도입할 가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미래 의료의 모든 것으로 비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새로운 기술이 환자 안전에 문제를 초래하거나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성공과 혁신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한 후 점진적인 시행을 통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절대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켈 수는 없지 않은가!

〈경상북도의회 편집위원회〉



## 오진과 의료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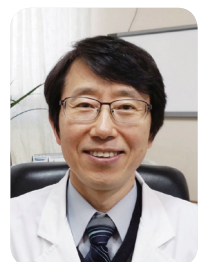
본인은 10여년 전부터 내과의를 개원하고 있으며, 작년 어느 날 기분 좋게 출근하여 진료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보호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통화하게 되었는데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 ‘자기는 000의 아들인데 자기 어머니가 본원에서 수년간 진료 받았는데 폐암을 오진하여 치료시기를 놓쳐 다 죽게 생겼으니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며칠 후 그 보호자가 본원에 왔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환자와는 멀리 떨어져 따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에게 000환자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며 진료기록부와 흉부X-선 사진을 요구하였다. 다시 그간의 진료과정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설명하고 원하는 것들을 주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진료기록부를 확인해 보니 평소에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80세가 넘는 여성환자로 10년 전부터 본원에서 갑상선결절, 관절염, 전신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최근 1개월 전에 감기 증상으로 내원하여 투약 받았고 최근 4년간 4번 정도의 흉부 X-선 촬영을 하였으며 가장 최근은 10개월 전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에게 환자분이 진행성폐암으로 진단 받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본원에서 시행한 흉부 X-선사진에서는 폐암의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폐암은 단순 X-선촬영으로는 조기에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사실을 환자분에게도 설명을 드렸으며 진료과정상 의료과실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잘 수긍하지 않고 ‘자기는 무지하게 화가 나고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일 후에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하라는 서류가 본원으로 배달되었고 신청인은 000환자의 아들로 5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중재원 직원과 통화하여보니 ‘한 사건에서 조정중재위원은 의사 한 명과 법조인, 소비자단체, 교수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조정중재에 참여하여 조정(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성립됨)이 성립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음)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 다룰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사)이 조정중재에 참여하라는 서류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며 신청을 하면 한번 정도는 서울에서 열리는 조정중재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장 필 식  
경상북도의회 법제이사  
경북의원(예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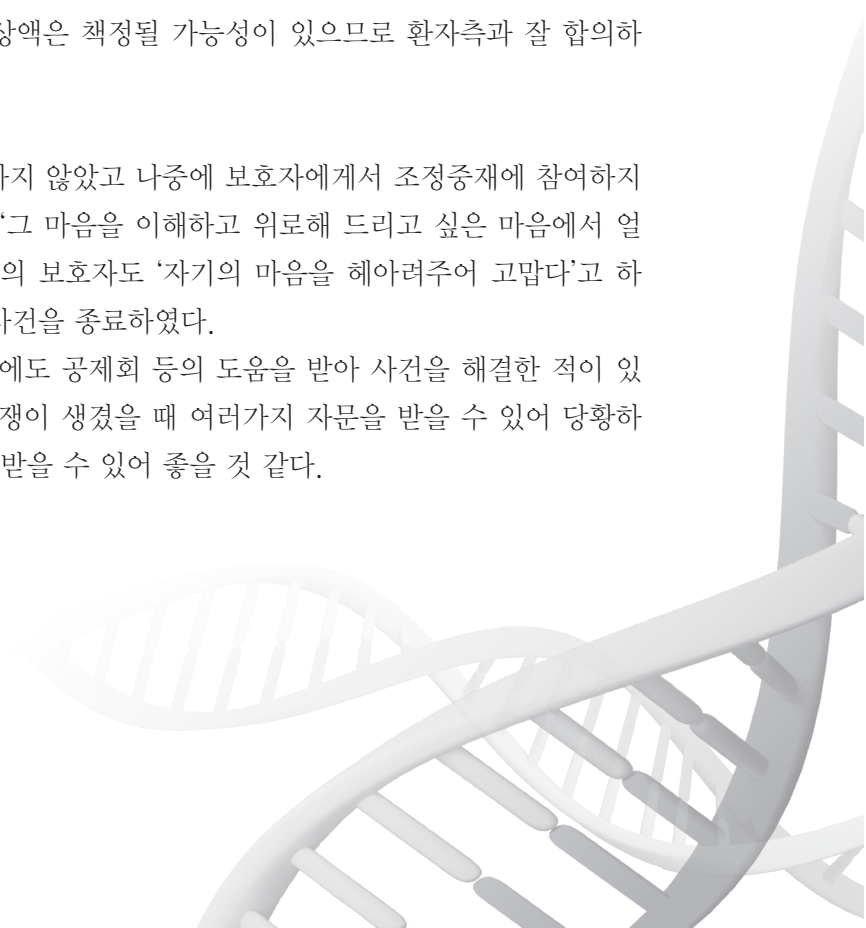
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이 진료과정과 의료기관의 속사정을 잘 이해해주는데 미흡한 것 같고 위원 모두가 차원 높은 의학지식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고 평일 하루를 휴진하고 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도 멀리서 본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되돌아갈 수십명의 환자를 생각하면 참 부담스러웠다. 지금은 조정중재의 개시가 피신청인(의사)이 동의해야 이루어지는데 만일 법이 개정되어 중재원에 신청된 사건에 대해 조정중재의 자동개시가 이루어진다면 환자측의 신청과정이 쉽고 수수료도 얼마 안되므로 (본원의 경우 500만 원의 조정 신청액에 대한 수수료는 22,000원임) 조정중재신청이 급증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방어 진료를 유발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비의 증가 및 진료형태의 왜곡 등을 초래하여 환자와 의사에게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침 지역의사회가 열려 여러 선생님께 그간의 경위를 이야기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환자의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자문을 구했는데 환자의 나이가 많고 진료과정상에 뚜렷한 과실이 보이지 않고 폐암이 10개월 전에 일찍 발견 되었다고 해도 예후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배상액이 높지 않을 것 같다며 내가 조정중재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환자측에서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잘 판단해서 대처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본인이 가입되어있는 공제회와 의사배상책임보험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니 ‘의사의 입장에서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소송을 하면 얼마간의 보상액은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측과 잘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중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호자에게서 조정중재에 참여하지 않아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는 전화가 왔었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얼마간의 금전적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환자의 보호자도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주어 고맙다’고 하여 250만 원에 합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사건을 종료하였다.

본인에게도 이번 의료분쟁이 처음은 아니며 전에도 공제회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다. 공제회 등에 가입해 놓으면 혹시라도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가지 자문을 받을 수 있어 당황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 개인정보보호 의료기관 자율점검, 2015년 12월 말까지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에 정식 입법통과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수집한 정보 폐기, 주민등록번호 대체 등 여러 방안을 만들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과 청구, 건강검진을 위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게다가 진료 후 만들어지는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영상정보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관리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다. 실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자율점검을 받은 의료기관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다면 당연히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 실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자율점검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도 대상입니다.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든 점검표라 항목도 많고 어

려워진 것입니다. 불필요한 항목은 ‘해당 없음’에 표시하면 됩니다. 방화벽과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소규모 개인 의원은 크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 의료기관의 형태에 따라 자율점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상북도의회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자율점검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SK전자차방전,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관련 진료정보 대량유출 사건 이후 행정자치부는 의료기관을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로 판단하여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3년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이를 돕기 위해 심평원에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점검 항목에 대해 답변을 하여 심평원으로 보내면 개선사항을 알려주고, 원하신다면 심평원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미비사항을 직접 점검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주체는 행정자치부로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는 관리 의무나 처벌 권한이 없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자율점검으로 행정자치부 실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실사(행정자치부 실사)에 대비해 연습(심평원 자율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실사를 하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을 할 수는 없습

2015년 10월 말까지 신청하고 12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2016년 4월말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작업을 해 온 것에 비해 의료계는 너무나 준비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심각성을 인식하고 준비를 해 왔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전 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한 명의 회원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상북도의회사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회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 삼  
경상북도의회사회 정보이사  
제일의원(경주)



## 편집위원회 기획연재 II | 일탈을 찾아서(1)

의성 권순호 회원을 만나다

# 그는 왜 탁구에 빠졌는가?

경북의학제 탁구종목에서 북부지역 10년 연속 우승,  
이젠 도민체전에서 우승하는 게 목표

일탈(逸脫)...“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남”을 뜻합니다. 환우들의 벗으로 뻑뻑한 진료일정을 소화해내는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들도 재충전을 위한 일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북의사회 편집위원회에서는 의사가 행복해야 환우들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료실을 벗어나 자신만의 긍정적인 일탈을 통하여 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닌 세상을 치료하는 진정한 인술(仁術)을 펼치고 계신 회원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권순효 삼성연합의원 원장(의성)

첫 번째 주인공은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삼성연합의원 권순효 원장님입니다. 권원장님은 영남대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고향인 경북 의성에서 정성을 다한 진료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의료 활동 외에도 지역을 위한 봉사를 고민하시던 권원장님은 평소 좋아하는 탁구를 통하여 지역을 위한 인술(仁術)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제 권원장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끼리 같이 레슨도 받고  
운동하다 보니  
부부화합에도 좋고  
서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

**진료 후에 탁구를 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조금씩 하다가 개원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골프를 했으나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고 평소 흥미를 갖고 있던 탁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병원 건물 3층에서 탁구대 한 개를 두고 시작 했는데 점차 사람이 많이 지면서 수요가 많아져 5년 전에 병원 주차장 부지에 탁구장을 짓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여가활동 중에서 왜 탁구를 하게 되었습니까?**

“학창 시절부터 탁구를 좋아했고 시간 활용도 편하고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탁구장은 사비로 지으셨습니까?**

“예, 처음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병원 내의 작은 공간으로 시작했으나 즐기는 사람이 많아져 다른 공간이 필요했고, 마침 주차장 부지에 공터가 있어 짓게 되었지요. 그리고 병원으로 번 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탁구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경비가 들기도 하지만 주로 동호회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요. 회원이 80여명 되는데 일정금액의 회비를 거두어서 각종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 각종 지역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 동호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력 향상을 위해 전문 코치로부터 정기적으로 레슨을 받고 있어요. 매일 회원들과 친선게임도 하고, 정기적으로 동호회 교류전을 합니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군수배, 도민체전 등에 선수로 참가하고 있어요. 이런 대회에 나가는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지요.”

### 수상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일 큰상으로는 도민체전 군부 종합 준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인구수가 적은 의성에서 이런 것 치고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밖에 여러 대회에서 입상을 하였고 개인적으로는 경북의학제에 탁구선수로 참석하여 북부지역이 10년 연속 우승하는데 일조했어요.”

### 탁구에 시간을 뺏기다 보면 집안일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혹시 가족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다행히 집사람과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에 나보다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부부끼리 같이 레슨도 받고 운동하다 보니 부부 화합에도 좋고 서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 탁구를 치고,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체력에 비해 너무 일을 많이 벌였나 싶을 때가 있어요.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회원들이 많다 보니 사소한 갈등도 생기고 이를 중재하는 데도 좀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많이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 탁구를 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진료실에 있다 보면 지겹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탁구가 정말 좋아요. 주로 복식으로 경기를 하는데 게임하면서 실수를 해도 끊임없이 웃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동호회 회원들과 친분도 쌓고, 덩으로 체력도 많이 좋아지니 일거양득이죠.”



01



02

01 1회 협회장배 탁구대회  
02 동호회 교류전 지원

치는 사람이 많아져  
다른 공간이 필요했고,  
마침 주차장 부지에  
공터가 있어  
짓게 되었지요





현재 의성 지역 탁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와 관련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성읍에는 아직 변변한 탁구장 하나 없어요(권 원장의 탁구장은 의성읍이 아닌 안계면에 있  
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탁구장을 하나 짓고 있어요. 이것이 완공되면 동호회를 더  
욱 활성화시켜서 도민체전에 나가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권 원장님은 인터뷰에서 망설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바로 시작하라고 말씀하  
십니다. 의사보다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 가을에 시작해  
야겠습니다. 먼저 내가 행복해야 가족, 환우 그리고, 세상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의사를 통해 사람들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와 같은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경상북도의회 편집위원회, 인터뷰정리\_권준영 · 서의태)



도민체전 선수단 발대식



의성군탁구협회 창립

## 중증 MERS 폐렴 환자 진료에서 중환자 전담 전문의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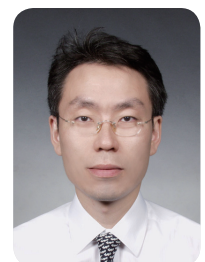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MERS) 감염은 폐렴 발생 시 반 수 정도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요하는 위중한 질환으로, 문헌에 의한 사망률은 약 40%로 알려져 있고, 이들 대부분은 중증 급성호흡부전의 경과를 보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총 18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36명으로 치사율은 19.4%에 이르렀다. 이들 중 상당 수가 전국적으로 기계환기법 적용을 받으면서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였고, 일부는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지속적 신 대체요법 및 체외막 산소화장비 적용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MERS 감염증에 대한 효과가 확립된 적절한 항바이러스 제제는 없으며 특히 중환자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좋은 보존적 치료(Best Supportive Care)를 받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증 폐렴 및 호흡부전이 동반된 MERS 감염증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역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의학칼럼에서는 MERS감염에 의한 중증 MERS 폐렴환자 진료에 있어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역할 및 중환자 치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MERS 감염에서 중환자 전담의사의 필요성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고에 의하면 MERS 환자 중 약 40%에 이르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고, 이들 중 대부분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저산소증 소견을 보여 95%의 환자에서 기계환기를 적용해야 했다. 기계환기 적용 후에도 저산소증이 개선되지 않아 복와위 환기법(Prone position)이나 체외막 산소화장비(ECMO)를 시도한 경우도 10~22%에 이르렀다. 또한 중증 MERS 환자들 상당수가 급성 신손상이 동반되어 지속적 신 대체요법을 적용한 환자도 60%였다고 보고되었다. 이렇듯 MERS 환자 치료에 있어 중환자실 내에서의 전문화된 치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서에서도 MERS 진료팀을 꾸릴 때 감염내과와 더불어 중환자 전담전문의가 포함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중환자실 구성

대한중환자의학회 및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중증 MERS 감염 중환자 지침'에 따르면 MERS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에 반드시 전담 전문의를 1인 이상 두어야 하고, 중환자 1인당 간호사 수는 당번 당 1인으로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중환자 전담의 1인당 기계환기를 적용하는 환자 수는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집중 감시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를 포함, 전체 환자 수는 5인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상민 교수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Figure1.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PAPR)

특히 중환자실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기 감염 주의를 기반으로 보다 엄격한 감염 관리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음압 격리실 외에 음압 전실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침습적 시술 및 에어로졸 발생 시술에 대비하여 적절한 숫자의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PAPR)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Fig 1). MERS 중증 감염에서 신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MERS 환자 전용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장비를 1개 이상 비치하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에 대비해서 MERS 환자 전용 ECMO 장비를 1개 이상 비치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중환자실 내 각종 시술 및 처치

환자 진찰 및 처치 시에는 의료진은 기본적인 개인보호장비(N95 마스크,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 긴 소매 가운, 장갑)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기도 삽관,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의 고농도 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한 시술 시에는 의료진 감염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신이 보호되는 소위 레벨 D 개인보호장비(N95 마스크,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 전신방호복, 장갑, 모자 또는 후드)를 착용해야 하며(Fig 2), 가능하다면 시술 담당의 1인 및 시술 보조 담당간호사 1인은 PAPR 착용이 권고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진 감염의 경우 상당수가 개인보호장비 장착이 미흡하였거나 착의, 탈의 시 주의해야 할 수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착의, 탈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삽관된 환자의 경우 폐쇄성 객담 흡인 장비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며, 급성 기도폐쇄와 같은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를 개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만성폐쇄성기도질환, 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블라이저 치료를 금하며, 이를 시행해야 하는 환자를 담당하는 경우 고농도 에어로졸 발생 시술에 준하여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Figure 2. 개인보호장비



보호복과 덧신



N-95 마스크



고글



일회용 장갑

## 산소치료 및 기도삽관

MERS 폐렴 환자에서 저산소증 및 쇼크가 동반된 경우 적절한 산소치료가 필수적이며 동맥혈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미 중증 폐렴이면서 호흡부전이 진행되거나 적절한 산소치료가 어려운 과이산화탄소혈증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보존적 산소치료로 조절하기보다는 조기 기도삽관 및 기계환기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저산소증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고유량 비강 산소요법(high flow nasal cannula oxygen therapy)이 수년 전부터 국내에도 도입되어 최근 적용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저산소증이 동반된 중증 MERS 폐렴 환자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고유량 비강 산소요법을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될 때는 기관 삽관을 바로 해서 기계환기 치료가 늦어져서는 안된다. 삽관 지연 시 환자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 기계환기법

기도 삽관 후 기계환기 적용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적용하는 폐보호 환기전략과 동일해서, 일회 환기량은 6ml/kg predicted body weight 미만, 고원부 기도압은 30cmH<sub>2</sub>O미만을 유지하고, 중등도 이상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인 경우 보다 높은 호기말양압(PEEP 15cmH<sub>2</sub>O이상)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저산소증 개선을 위해서 필요시 폐포동원술(recruitment maneuver)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기계환기 시작 후 초기 48시간 동안 저산소증을 개선하고 기흉 등의 기계환기관련 폐손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경근차단제 사용이 권장되고, 24시간 이상 기계환기 시행 이후에도 저산소증의 개선이 없을 경우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복와위 적용을 권고한다. 복와위 적용은 최소 10시간 이상을 시행하며 이 때에도 폐 보호환기 전략은 가능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48시간 이상 기계 환기 적용이 지속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얇은 진정을 시도하고 특히 적절한 진통 조절 및 섬망 발생의 예방이 필수적이다. 일주일 이상 기계 환기 지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조기 회복 및 기계 환기 이탈을 위해 적극적인 중환자실 재활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적극적 재활치료의 시작은 바이러스 음전이 2회 이상 확인된 시점부터 시작하며, 이를 위해 전담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체외막산소요법 (ECMO)

MERS 감염에 의한 중증 폐렴 환자에서 ECMO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 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집트의 King Fahd Hospital Jeddah 병원에서는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총 53명의 MERS 감염 환자 중 24.5%인 13명의 환자에게 ECMO 적용했던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3.5세였고, ECMO 적용 기간은 평균 11일 정도였으며, 이들 중 38.5%의 환자가 생존하였다.

실제로 MERS 감염에 의한 폐렴의 경우 SARS에 의한 폐렴 보다 빠르게 악화됨이 알려져 있어 ‘중증 MERS-CoV 감염 중환자 지침’에서는 아래의 경우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ECMO치료를 고려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 ① PaO<sub>2</sub>/FiO<sub>2</sub><70 with PEEP ≥ 15cmH<sub>2</sub>O인 경우
- ② 고원부 기도압 30cmH<sub>2</sub>O이상, 호흡수 35회 이상 기계 환기 설정에서 고이산화탄소혈증에 의한 호흡성 산증이 동반되는 경우
- ③ 기계 환기에 의한 압력 손상으로 기흉 및 이에 의한 지속적인 공기 유출증이 지속되는 경우.
- ④ 급성 시기에서 회복된 경우라 하더라도 30일 이상 기계 환기를 이탈할 수 없는 후기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행한 환자에서 폐이식 적응증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급성호흡부전에 대한 ECMO는 VV mode(veno-venous ECMO)를 적용한다. 단, 초기 환자 상태에 대한 중환자 전담 전문의 및 ECMO 시술 의사의 판단에 따라 VA mode(veno-arterial ECMO)혹은 modified mode를 적용할 수 있다.

ECMO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경험이 적은 병원의 경우에는 ECMO 경험이 많은 병원으로의 이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MERS 감염에 의한 ECMO 치료의 경우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없다. 그렇지만, MERS 감염에 의한 폐렴의 경우 과거 SARS 감염보다 객혈이 흔하다고 알려져 있어 출혈에 의한 합병증에 좀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맺음말

MERS 감염증은 많은 수의 환자가 중증 폐렴으로 진행하여 중환자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이고, 이에 따라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중증 호흡기 감염병이다. 국내에서도 이번 신종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중증 호흡기 감염병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중환자 진료 시스템을 다시금 정비해서 개선시켜야 하고, 그 중심에는 중환자 전담전문이가 포함된 다학제 진료 시스템과 음압 격리실-전실을 갖춘 중환자실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 < 참고문헌 >

Arabi YM, Arifi AA, Balkhy HH, Najm H, Aldawood AS, Ghabashi A, Hawa H, Alothman A, Khaldi A, Al Raiy B. Clinical course and outcomes of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fection. *Ann Intern Med.* 2014 Mar 18;160(6):389-97.

Oboho IK, Tomczyk SM, Al-Asmari AM, Banjar AA, Al-Mugti H, Aloraini MS, Alkhalidi KZ, Almohammadi EL, Alraddadi BM, Gerber SI, Swerdlow DL, Watson JT, Madani TA. 2014 MERS-CoV outbreak in Jeddah—a link to health care facilities. *N Engl J Med.* 2015 Feb 26;372(9):846-54.

Zumla A, Hui DS, Perlman 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Lancet.* 2015 Jun 3. pii: S0140-6736(15)60454-8. doi: 10.1016/S0140-6736(15)60454-8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중증 MERS-CoV 감염 중환자 지침 2015

대한감염관리학회: MERS 검사실 진단지침 2015



# 버드나무 숲

버드나무 숲에  
 바람은 버드나무가 된다  
 버드나무 잎을 스치며  
 바람은 버드나무의 소리를 낸다

버드나무 숲에  
 새들은 버드나무가 된다  
 버드나무 가지에 앉아  
 새들은 버드나무의 노래를 한다

길게 드리운 가지 사이로  
 숲은 깊고 아득하다  
 버드나무 숲에  
 머물고 지나가는 것들  
 우리는 모두 버드나무가 된다

강변으로 이어지는 소릿길  
 풀섶 아래 습지(濕地)를 걸어  
 모래톱에 이르면  
 다시금 따라와  
 물가에 서는 버드나무의 그림자

버드나무 숲의 바람이 되고  
 버드나무 숲의 새가 되고  
 금호강 둔덕에 서면  
 당신은 어떤 모습, 어떠한 소리로  
 이 江을 마주할까



**박송훈** 과장  
 경북도립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포항)  
 현 의사신문 칼럼니스트

## 詩作後記

---

금호강(琴湖江)의 오월은 파릇파릇한 버드나무 가지로 일어선다. 영천(永川)댐에서 시작한 강줄기는 임고(臨阜) 들판의 복사꽃 과수원을 지나, 중류쯤의 청천(靑川)에서 미루나무와 버드나무가 섞이고, 하룻밤 이틀 하루에 도달하면 고수부지는 잡풀 더미 위로 키 큰 버드나무 일색이다. 버드나무 숲의 잔영(殘影)이 떠다니는 검단동 강변을 걸어, 평강의 외가로 다니셨던 아버지는 버드나무 숲의 바람이 되었고, 바람 부는 금호강 둔덕에서 나 또한 버드나무 숲의 새가 되어 있음을... 아버지의 아버지, 버드나무 숲은 강물처럼 이어지는 당신의 한 조각 추억이 되리라. 존재의 저편, 우리 역시 버드나무 숲을 지나는 바람과 새들인 것을...

## 북유럽 여행

지난 초여름은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불안스러워 하다가 정부 당국자와 우리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칠월말경에는 거의 진정되어 미리 계획한 대로 북유럽 4개국 여행을 결심하였다.

8월 7일, 무더운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비행시간 8시간 40분 만에 핀란드 수도 헬싱키 공항에 도착하니 시원한 초가을 날씨 같아 상쾌한 마음으로 입국 수속을 하였다. 헬싱키 공항은 북유럽 국가의 대표적인 관문으로 공항 검색이 아주 세밀하여 몸에 지닌 물건을 전부 노출시키고 심지어 허리띠를 모두 풀어내라고 하였을 정도였다.

헬싱키 공항 청사에서 대기중 면세점이나 식당가를 둘러보고 약 1시간 30분 후 다시 비행수속을 하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약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하였다. 여기는 국내 여행객과 같이 아무런 입국수속도 없이 공항을 빠져나왔다.



**덴마크** 인구 550만 명, 국민소득 55,000불, 넓이 43,094km<sup>2</sup>, 기후는 낮 23도℃, 저녁 18℃

덴마크 코펜하겐의 거리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깨끗하고 도로 좌우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 택시 이용자가 드물 정도였으며,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보다 자전거가 우선이라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책임지는 제도라 한다. 처음 덴마크 왕궁 아마리안보 궁전으로 가니 많은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관광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으며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일반 정부 청사 같은 분위기였다. 덴마크 국회의사당으로 가보니 작은 광장에다가 아담하고 주차장은 없고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고 한다.

다음은 1908년 1차 세계대전당시 사망한 덴마크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게피온 분수대를 보았다. 이 분수대는 유럽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 황소 네마리를 몰고 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조각가 안데스분드가르드가 조각하였다.



신은식 원장  
신정형외과의원(포항)

다음은 그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상을 보았는데 사람 실물크기의 1.5배 정도로 물가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조각가 에드바르트 에릭센이 어떤 발레리나를 모델로 조각하였으며 그후 조각가는 그 모델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 이 조각품은 당시 칼스버그 맥주회사 회장이 기증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진찍기도 힘들 정도였다. 인어공주는 바다왕에게 여섯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공주가 우연히 물 밖으로 구경 갔다가 마침 물에 빠진 어떤 왕자를 구하게 되었는데 첫눈에 서로 반하게 되어 사랑하게 되어 왕자와 함께 있고 싶어서 곁에 있는 마녀에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달라고 졸라대니 마녀는 다리를 주면 목소리를 내어놔야 한다고 하여 목소리를 내어주고 다리를 얻어 시녀로 변신하여 왕자를 보살폈는데 왕자는 인어공주가 자기를 물에 빠진 것을 구해준 사실을 모르고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게 되자 왕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다는 동화를 형상화한 것이다.

선대 왕들이 사용하던 왕관과 보석 말안장 위엄을 자랑하는 장검들이 전시된 로젠버그 보석 박물관을 둘러보고, 낚시용 항구로 가서 좁은 항구에서 작은 선박들이 많이 있고 좌우에는 높지 않은 4,5층의 건물과 레스토랑 및 각종 상점이 즐비하며 그 뒤편에는 풍물시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 청개천 공사모델로 삼으려고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 가이드가 이야기 하였다.



---

###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상 조각가 에드바르트 에릭센이 어떤 발레리나를 모델로 조각

---

바닷가 건너편에 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본래 조선소가 있었던 건물로서 조선경기가 우리나라 등에게 경쟁력이 모자라 모두 다 넘기고 오페라하우스를 지었다고 한다.

다음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로 출발하게 된다. 오슬로는 바다 건너 있어 대형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여 14시간정도 장거리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었다. 선내는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 식당, 면세점, 카지노, 무도장 등 약 2,0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다. 저녁식사 시간에는 와인이나 맥주 등 어느 것 하나 선택하여 무료 제공되는 제도도 있다. 여기서는 여행 중 만난 대구에서 개업하는 H박사 내외분을 만나 맥주 파티를 즐기면서 선상 투어를 마음껏 즐기게 되었다.



## 노르웨이

크루스선상에서 하룻밤을 자고나니 다소 피곤함이 풀리는 듯 하였다. 선상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보니 현지 가이드가 나와 안내를 시작하였다.

인구는 570만명, 국민소득은 10만불, 땅넓이는 323,802km<sup>2</sup>, 물가는 세계에서 상위그룹에 든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담배 한 갑에 18,000원 한다고 하니 놀랄 정도다.

노르웨이는 북해산 석유개발로 갑자기 국민 소득이 급속도로 높게 되었다 한다. 노르웨이는 남쪽은 비교적 넓고 북쪽은 좁아 마치 올챙이를 거꾸로 세워둔 형태라고 설명한다. 남쪽은 온화하고 멕시코 난류 때문에 기온이 겨울은 최저 영하 3℃, 여름 최고는 22℃ 정도라 하니 살기 좋은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쪽에는 겨울이 너무 길어 5월 이후에야 겨우 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극이 가까워 밤이 길고 햇빛이 적어 동토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남쪽과 북쪽의 기온차가 심한 지리적인 원인이란다. 오슬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도로에는 비교적 한산하면서도 길옆에는 엄청난 양의 많은 물이 큰 호수를 이루는데 전부 눈이 녹아 고인 물이라 하였다. 노르웨이는 물이 많아 수력발전만으로도 충분히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으로 들어가니 곳곳에 흰 눈이 덮혀 있고 1,500m가 넘는 높이의 고산지대는 넓은 평원을 이루어 곳곳에 호수를 이루어 이곳에서 내려가는 물이 바닷물과 합쳐 염분이 떨어진다고도 한다. 고원지대는 나무는 거의 없고 키가 작은 이끼 같은 작은 풀만이 듽성듬성 나 있었다. 1,030m 높이의 호숫가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 만에 바닷물이 철렁이는 바닷가까지 좁은 비탈길을 구절양장처럼 꼬불꼬불 급경사를 내려오다 보니 나는 차멀미가 나서 한참동안 안정을 취하였다.

우리는 게이랑에르 피요로드를 만나게 되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은 너무나 자연경관이 좋아 유네스코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배에 버스를 싣고 피요로드 좌우 경치를 보면서 약 1시간 정도 좌우 깎아 지른 절벽에서 내려오는 수 많은 폭포수에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피요로드란 빙하시대에 엄청난 높이의 빙하가 쌓이다 보니 무게에 눌려서 빙하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계곡 모양의 협소한 땅이 침하되어 발생한 협소한 만이라고 협만(峽灣)이라 부르며 깊이는 1,300m나 되는 곳도 있다하며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자연현상이라 한다. 게이랑에르 피요로드를 지나 좁은 일차선 자동차 길로 한참을 가다보니 프롬 열차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마침 좁은 바닷가 항구에 낫익은 대형 크루즈 선박이 보여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지중해 서부 지역 크루즈 여행하면서 탔던 MSC회사 SPLENDIDA 호였다. 우리 내외는 반가운 마음에 그 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배 크기는 길이 330m, 높이 14층, 승선인원 승객 4,500명, 종업원 1,600명 가량의 대형선박이며 마치 항공모함과 같다.

프롬열차를 타고 미르달 산장까지 약 20km를 1시간 정도 가는데 베르겐에서 오슬로로 연결되는 열차의 지선으로 약 800m 높이의 산악지대로 향하는데 열차안에서 경북 상주에서 K원장 부부가 동행임을 알게 되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다. 북구라파의 여행의 백미라 할 만큼 경치가 아름답고 380도를 돌아가는 터널은 감탄사를 저절로 낼만하고 선녀폭포라는 곳에서는 엄청난 폭포물이 쏟아지는 광경에 모든 승객이 탄성을 질러대곤 했다. 여기서 열차를 5분간 정차하여 사진촬영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폭포 옆에는 선녀 차림을 한 빨간색 드레스의 아가씨가 춤을 추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빙하 지대를 보기 위하여 브릭스달로 향했다. 과거에는 엄청난 양의 빙하였으나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많이 녹아 양이 아주 적다고 하였다. 버스에서 내리니 수많은 관광객이 도보로 약 4km 산악길을 걸어서 빙하 지대로 가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는 6인용 산악 지프차로 비탈길을 오르게 되었다. 빙하 지대로 가는 도중에는 빙하에서 녹아내린 엄청난 양의-무지개가 서는- 폭포수가 쏟아져 비닐로 머리 위를 덮어 쓰기도 하였다.

노르웨이 제2도시(과거 수도였음) 베르겐으로 가기 위하여 중간에 피요로드를 지나야 하는데 선박으로 자동차를 건너는 곳도 있고 현수교로 건너는 곳도 있었다. 바다 깊이가 너무 깊



어서 중간에 다릿발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요로드를 건너니 바로 긴 터널이 나오는데 좁은 왕복 2차선으로 길이가 25km나 된다고 하였다. 스칸디나비아산맥을 통과하는 터널이다.

베르겐에 도착하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오래된 호텔에 들르니 유명한 노르웨이 화가 몽크와 남극 탐험가 아문젠이 자주 들렀다는 역사 깊은 호텔이었다. 아문젠은 1911년 남극 대륙 극점을 처음 탐험하고 노르웨이 국기를 꽂았다고 한다. 당시 영국의 탐험가 스코트 대령은 탐험 도중 굶주림과 혹한에 사망했지만 아문젠은 썰매를 끄는 개를 120마리 몰고 가서 심한 배고픔이 있으면 중간 중간 개를 잡아먹으면서 탐험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12마리 썰매를 끄는 개만 남겨두고 다 잡아 먹었다고 했다. 가장 존경받는 영웅으로 추대되고 있었다.

베르겐은 옛날부터 어업의 중심도시로 스칸디나비아반도는 세계 삼대어장의 하나로 해산물이 풍부한 도시이다. 나는 아내와 같이 베르겐 어시장에 들러 구경을 하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즉석구이 식당에는 관광객이 빼곡히 차 있어 한 바퀴 둘러보는 구경만 하고 사진만 몇장 찍고 돌아 나왔다. 전동차를 타고 베르겐 전망대를 올라갔는데 320m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니 안개가 자욱하여 시가지 구경도 못하고 비바람에 추워서(여름인데도 13℃) 웅크리고 매점에 들어서 잠시 바람을 피하다가 바로 되돌아 내려오게 되었다.



오슬로로 돌아가는 중간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캠핑카 모임 클럽이 여기 저기 많이 보였으며 겨울이면 스키를 타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스키장도 여기저기 많이 보였다. 오슬로에서 국립박물관에 들렀는데 노르웨이 태생 유명한 화가 몽크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그림이 절규(絶叫)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다. 뉴욕 명화 경매장에서 1억 2천만 불이나 되는 경매가가 매겨진 명화로 유명하다.

구스타프 비켈란 조각공원에 갔는데 인생이란 제목으로 수많은 조각을 하여 전세계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사랑하며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또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한 노력 등을 조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4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하여 200여점의 청동기 조각을 완성하였다 하며 특히 높이 17m나 되는 거대한 하나의 화강암에 새겨진 모노리텐 조각품은 12명의 남녀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노벨 평화상은 노벨상 중 유일하게 노르웨이 시청에서 시상하게 되어 있다. 노벨 평화상은 1901년 12월 10일 처음 시상했는데 노벨의 유언에 따라 평화상은 유일하게 노르웨이에서 수상하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이다. 과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스웨덴 국왕 밑으로 합병되어 있다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 스웨덴

스웨덴하면 우선 떠오르는 노벨상을 생각한다. 노벨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라나면서 미국 유학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스웨덴에서 액체 상태의 니트로글리세린을 구조토에 혼합하여 고체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하는데 성공하여 1877년 특허를 얻어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 불행히도 결혼도 하지 못하고 말년에 병석에 누워 요양 중에 노벨의 형님인 루드비그 노벨이 죽게 되자 어떤 프랑스 신문이 착각으로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신문에 노벨이 폭약의 발명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면서 돈을 벌게 된 “죽음의 상인 사망”이라고 나쁘게 평하자 노벨은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면서 전 재산의 90%를 사회에 기증하여 노벨상을 창설하는 유언장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말년에 이탈리아 산레모에서 쓸쓸히 운명했다고 한다. 사망일이 1896년 12월 10일 63세. 노벨상 시상일이 매년 12월 10일이다.



스톡홀름 시청 내부를 관람하니 웅장하고 화려한 시상식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시의원들이 회의하는 의회도 방문하였다. 스웨덴 국왕을 비롯한 수많은 귀빈들이 참석한 수상식장면은 매년 세계적인 관심의 축제였다. 많은 관광객들이 시청 내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다음은 유명한 바사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1628년 덴마크 바사왕가의 구스타프2세 왕이 발트해를 장악하고 그 위세를 떨치기 위하여 바사 전함을 만들어 스톡홀름에서 폴란드로 처녀 출항하다가 풍랑으로 침몰하여 150여명중 30여명이 익사한 중대 사건으로 침몰 후 333년 만에 선박을 인양하여 복원하여 전시된 것이다. 16세기 당시로서는 거대한 선박으로서 길이 69m 폭 11.7m 높이 52.2m였으며, 침몰 원인은 64문의 화포와 포단의 무게로 중심을 잃었다고 한다.

스톡홀름을 뒤로 하고 실라리안(SILJA LINE) 대형 크루즈를 타고 14시간이나 긴 크루즈여행을 시작하였다. 2,800명 승선 인원에 58,000t 크루즈배에 승선하니 선박 중앙에서 요란한 밴드와 춤으로 여행객들을 환영했다. 각자 배정된 선실에서 여장을 풀고나니 곧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 대형 식당으로 가니 우리의 사들 내외분이 같이 모이게 되었다. 이번 크루즈는 식사와 음료수 및 와인을 비롯한 맥주까지 무한정 무료 제공 되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밤이 깊도록 즐거운 선상 파티를 하면서 북유럽의 마지막 밤을 즐겼다. 선박안에는 무도장, 카지노, 영화관, 면세점 등 특급 호텔에 준하는 시설이었다. 선실에서 편안히 취침을 한 후 아침에 헬싱키에 도착하여 마지막 관광을 시작하였다.



### 핀란드

핀란드는 13세기까지 스웨덴에 합병되어 지배를 받다가 18세기 후 200년간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다가 1917년 독립했다. 인구는 550만명, 면적은 338,145km<sup>2</sup>로 한반도의 1.5배, 국민소득 55,000불로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안정된 나라이다.

헬싱키는 북구라파의 베니스라 할 만큼 아름답고 물이 풍부한 도시다. 헬싱키의 대표적인 광장인 세넬트 광장에 가니 하얀 벽돌로 지은 헬싱키 루터란 대성당이 있는데, 22년간 건설한 핀란드의 대표적이며 헬싱키의 상징적인 교회다. 국가적인 종교행사의 본산이다. 이 광장을 조금 지나면 남쪽 항구 옆에 카우파 헬싱키 시

장이 있는데 주로 수입 과일들이 많고 각종 먹거리를 팔고 있어 서민들이 즐겨 먹을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실비라 우리도 체리를 한 봉지 사서 먹어보니 달고 먹을 만 하였다.

다음 핀란드의 유명한 작곡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조각 공원을 보았는데 시벨리우스 두상과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의 조각이 인상적이며 공원 주위가 조용하고 수목이 울창하여 휴식 공간으로는 최상으로 보였다. 공원 뒤편에는 요트 정박장이 있어 수많은 요트를 볼 수 있었다. 헬싱키 시내 큰 바위산이 있었는데 도시 개발을 위하여 의논하던 중 1969년 큰 바위산에 티오모와 수오모마리엔 형제의 설계로 암석교회를 세웠는데 템펠리아우키오 교회로 거대한 지하교회로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자연 친화적이며 암석 작업시 발생한 울퉁불퉁한 요철부위가 울림현상을 없애주는 음향효과를 일으키고 지붕은 적당히 빛이 들어오게 하여 이상적인 조명효과가 있었다. 여기서는 결혼식 또는 중요한 음악회를 자주 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여행 일정도 저물어가기에 서둘러 공항으로 이동하여 헬싱키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끝내고 공항 FINN AIR 라운지에서 간단한 휴식을 취한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의료계 동료들이 있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이번 여행은 비교적 이동거리가 멀어 보다 젊은 시절이면 더욱 알찬 여행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거의 매일 5~6시간 이상 버스나 14시간 이상의 크루즈로 이동하며, 길도 험소하여 다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 기온은 14~23℃라 여름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라 여긴다. 서울에 도착하니 30℃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 너 여기까지 참 잘왔다

멀리 동해 심해선 밖의 한 점, 깊고 푸른 바다 위의 외딴 섬 울릉도에 아내와 함께 들어와 산 지도 벌써 1년 8개월이 흘렀다. 3무 5다의 섬이라 뱀과 거지와 도둑이 없기에 겁낼 것이 없고 평안하고, 돌과 바람과 물과 향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라 어디에 가나 보이는 바다와 기암과 나무들 그 사이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맞닥뜨리며 살다보니 그 자연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말은 일이야 21명의 공중보건의사들과 80여 명의 공조직의 직원들과 함께 1만 명의 울릉도민들과 연간 30여만 명이나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이지만 전체적인 조직의 관리가 의료원장의 주된 업무라서 이제까지 수십 년 해왔던 진료업무는 극히 제한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자나 응급환자의 판단과 이송에 국한되어 있고 가끔 영양원의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의 주민들을 돌보는 일들이라서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울릉도는 위험한 섬이라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일어나는 낙상사고와 여러 응급상황이 종종 벌어지면 바다의 파고, 해무, 구름, 바람 등의 기상상태에 따라 헬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게 되는 일에 주력 하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지만 다행히 응급 처치를 하고 이송했던 환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면 참 보람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다.

숙소의 창문으로 내다보면 멀리 도동항 너머로 푸르른 바다가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고 너울

거리는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독도 전망대길이나 KBS 중개소로 가는 울창한 산책길을 걷기도 하고 때때로 행남등대로 가는 해안 산책로를 걸어 보면 바다의 신선한 내음과 수목의 향취, 그리고 기암괴석의 구멍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온 몸과 마음이 무언가 알 수 없는 신선함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기분을 느낀다. 주말이 오면 간식이나 도시락을 싸서 나리분지에서 신령수로 가는 원시림의 비경을 맛보기도 하고 내수전에서 석포로 가는 울창한 삼림욕장을 탐방하기도 한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온갖 종류의 식물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 왔던 인생길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왔던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며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내과수련의 시절 많고 많은 밤을 환자와 논문에 매달려 살아가던 시절도 떠오르고 군의관 훈련을 마치고 청평후송병원에서 처음 군의관으로 지나던 시절의 동료들도 생각한다. 연무대 논산 제2훈련소 지구병원으로 배치되어 신검을 할 때 귀향조치 해주었던 주병진씨도 기억이 나고 진료부장으로 재직시 제7공수부대 장교들과 함께 어울려 친선 테니스 시합하던 기억도 떠오른다. 전역 후 대구 북현동에서 내과의원을 개원하여 밤늦게까지 진료하던 초창기 개원의 시절과 내과전문의와 함께 가정의학전문의를 취득하여 대구경북가정의학회를 거쳐 대한가정의학회에서 활발하게 학회활동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 학회장 재임시 프라하 세계학회에서 홍콩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2018년도 세계 WONCA를 서울로 유치했을 때의 감격도 기억이 난다. 대구 수성구로 이전개원도 해보고 개인의원의 한계를 느껴서 드림병원이란 전문병원을 공동으로 개원 할

손경식 원장  
울릉군보건의료원(울릉)



때 초기에 자금이 막혀 힘들던 때를 극복해나가던 시절도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동인동에 요양병원을 개원하여 노인들의 진료를 경험해보면서 노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지 몸소 체험하며 민간의료의 한계를 벗어나 공공의료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던가...

신앙적으로는 처음 주님을 만나서 기독교신자가 되고 복음전파와 제자양육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젊은 날의 꿈도 있었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면서 가정사역과 아버지학교 운동을 통하여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고 외치며 전국을 뛰어 다녔던 열정도 있었으리라. 기독의사로서 해외의료 봉사를 통하여 10여년 해외 선교를 돕고 의료선교병원을 세우고자 했던 노력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어찌 되었는지?... 그런 지난 날의 기쁨과 아쉬움 모든 것이 바다와 나무들과 바람과 대화하면서 소롯이 가슴속에 녹아나기도 하고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내면의 내 자신도, 내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외부적인 활동에 치우쳐서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내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니었나 반성도 된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셨고 그런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하여 받으며 살아온 복된 존재 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헛된 일에 분요하게 허둥되는 삶은 살지 않아야겠다.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활용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돌아보니 지금이 내 인생의 노른 자위이며 최고의 황금기가 아닌가 싶고 삶의 여유와 의미와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 언제 까지 이 삶이 지속될 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나는 오늘에 충실하며 천국의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힘쓰며 살려 한다.

문득 얼마 전 읽은 구상 시인의 ‘꽃자리’란 시가 생각이 났다.

---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기까지 참 잘 왔다!”

---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속에 갇혀있고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울릉도에서...



## 유라시아 친선 특급 열차 의무실

2015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 까지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가 있었다. 외교통상부와 코레일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다.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에 맞춘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필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의무실장' 자격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베를린까지의 전 일정을 탐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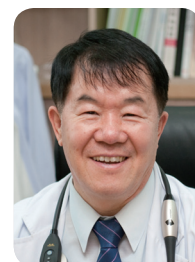
20일간의 긴 여정 중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았다. 이번이 세 번째 '시베리아 횡단열차 의무실'을 운영하다보니 나름대로 여행 의학의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여정 중, 정말로 잊지 못할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다.

〈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 의무실장 이종규 〉

### 1. 귀여운 열차 승무원

의무실과 숙소가 식당 칸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잖이 불편했다. 직장과 집은 가까이 있을 때가 참 좋은데... 출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품 보따리와 청진기를 목에 걸고 식당 칸을 뺏길나게 드나들었다. 게다가 통로가 좁아서 늘 목에 걸고 있는 청진기는 지나치는 상대방의 옷깃을 잡아끌기도 하고 팔려 가기도 한다. 사실 그로 인해 오히려 더 친숙해 지는 기회가 되었으니 불평을 할 계재가 되지 못한다. 어쩌다가 열차가 급수를 하거나 간간이 정차 할 때면 짧은 스트레치와 아울러 시베리아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곤 한다. 짬짬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열차 승무원들은 청소도 하고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 기실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로 오는 동안 10-9는 진료실로 배정을 받았다. 10번 바곤의 열차 승무원은 성격이 좋고 퐁퐁한 60대쯤의 여자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여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승무원 꾸폐에서 거의 움직이지를 않는다. 오가며 흘끗흘끗 관찰해보니 왼쪽 발을 침대위로 올려놓고 컴퓨터에만 집중하고 있다. 무언가 좀 불편한듯했지만 굳이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르쿠츠크에서 부터 권 팀장의 배려로 숙소를 진료실 근처로 옮겼다. 진료실의 약품을 정리 하고 있을 때, '크세니아'는 아주 어려운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열차 승무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열차가 정차할 때 하차를 하다가 넘어진 이후로 왼쪽 발에 심한 동통과 더불어 보행이 곤란하다며 왕진을 요청했다. 옮겨니! 한번쯤은 이런 일이 있기를 기대했다. 십여 년 전에는 식당 요리사가 과음을 하고 몹시 고통스러워했던 일이 있었다. 수액요법과 투약으로 아주 손쉽게 치료된 적이 있다. 그 후부터 식당에선 최고의 VIP 대접을 받았다. 아무튼 이번에도 역시 기다리는 기회를 포착했다. 우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생각대로 좌측 발목관절의 인대가 일부 충격을 받았다. 이럴 경우 TPI 는 매우 효과가 있다. 즉석에서 충격을 받은 인대를 찾아 통증 완화 주사를 두어 차례 주사를 하고 압박 붕대로 감아 주었다. 근 이완제와 진통제를 건네주고 둔부에 근육주사를 한차례 더 주사하고 나서 돌아 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던 그녀의 표정을 보고 기대에 못 미칠까 걱정을 했다. 체중이 우리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관계로 투약 양을 조금 늘렸다. 그리곤 아예 잊어버리고 말았다. 노보에 도착할 때쯤 그녀는 좁은 열차의 통로를 걸어와서 진료실을 두드렸다. "독토르! 스파시바!" 그리곤 매우 환한 웃음으로 말하는 모습이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참 귀여운 모습이다. 이후 그 러시아 여자 승무원은



이종규 원장  
연세가정의학과의원(울진)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스빠시바!”라며 밝게 웃곤 했다. 노보시비르스크에 열차가 도착했을 때는 아주 완전한 걸음걸이로 미리 내려서서 약품 가방을 받아주었다. 러시아인들의 고운 심성이 느껴진다.

아직 모스크바까지는 먼 길인데 얼마나 많이 “스빠시바!” 소리를 듣게 될까? 결코 듣기가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그녀의 진정성이 배어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지겹지 않다고 한다. 의사들에겐 그만큼 기분 좋은 소리 중의 하나가 “스빠시바!”라는 말인가 보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에 잘 어울리는 일이라서 정말로 흐뭇하기만 하다. 우연치 않게 생긴 믹스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들고 물을 받으러 갔다가 또 만났다. “독토르! 스페시바!” 커피 잔을 빼앗다 시피 가져가더니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공손하게 따듯한 물을 붓고 저어준다. “스빠시바!” 우리는 눈동자를 마주치며 싱긋이 웃었다. 언젠가 읽었던 ‘안톤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이 생각난다. 열차는 예까를 향해 긴 기적을 올리고 ...

2015. 8.



## 2. 이르쿠츠크 호텔 425 호실

이르쿠츠크는 참 매력 있는 도시다. 양가라 강변의 자작나무 숲속에서 누군가와 속삭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바이칼의 잔잔한 수면 위로는 보트를 타고 달리고 싶다. 주변의 많은 울로츠키는 언제든지 아늑한 장소를 제공해 준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반야에서 사우나를 하고 땀방울에 젖은 채로 양가라 강변으로 뛰어 든다. 땀에 젖고 자작나무에 젖고 강물에 젖다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은 자연인이 되게 마련이다. 바이칼은 그런 자연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다. 인체는 언제나 자연 본래의 상태를 유지 하려고 한다. 기능적인 면이 우선되는 건 생명 유지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때로 이런 자연의 순환 법칙이 무시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기능을 무시하고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보면 기능은 물론이고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전락한다. 십여 년 전, 열차에서 몇 차례 감기약을 주고 무릎에 상처를 치료 해 주었던 기억이 있다. 흰색 블라우스에 감청색 스커트가 유난히도 잘 어울리던 서른 안쪽의 여인이다. 바이칼에서 생긴 무릎의 상처는 페테르부르크에 가서야 말끔하게 완치가 되었다. 의사들은 기능적인 면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메스를 잡는다. 그래도 인체는 기능과 자연적인 회복의 상관 관계를 기가 막히게 조율한다.

이르쿠츠크 호텔 425실이 숙소다. 꽤 늦은 시각이다. 노크 소리에 반사적으로 문을 열었다. 몹시 거북하고 불편한 표정이 역력하다. 열차를 타기 전에 제거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었지만 수술 후 치료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수술 자체를 미뤘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이칼에서 문제가 생겼다. 통증이 심해지고 거북해지며 작업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병변을 보고 나니 아연 실색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는 작업은커녕 여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처지다. 가슴뼈 정 중앙에 4x3x5cm 정도 크기의 한선 낭종이 이미 터져버려서 어떻게든 절개를 하고 배농을 해야만 했다. 유출되는 농과 피지는 악취를 풍기기도 했다. 호텔방은 너무도 어두운 조명이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플래시를 입으로 물고 절개를 하는 방법 뿐. 서둘렀다. 환자를 침대에 눕도록 했다. 마취는 필요 없다. 플래시를 입에 막 물려고 할 때 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의 그 기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만 같다. 그게 누구였든 상관없다. 10분만 도와주면 된다. 조명을 비춰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묘령의 아가씨다. 그녀가 화들짝 놀라던 모습도 아직 잊어지지 않는다. 메스를 들고 있는 남자, 침대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남자, 여기저기 흩어진 피고름이 묻은 거즈와 퀴퀴한 냄새. 손에 칼을 들고 플래시를 비춰달라는 모습. 침대에 누워있는 사내는 통증을 참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고 숨을 죽이고 있다. 칼로 피부를 찌는 순간 자지러지는 사내의 모습과 ‘퍽’ 하고 튀어나오는 피고름과 피지 덩어리들. 플래시로 수술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묘령의 아가씨는 그만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절개 부위가 어두워지는 바람에 나는 그만 소리를 질렀다. 흘끗 얼굴을 쳐다보았다. 날벼락도 유분수지! 수술 부위를 비치고 있던 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플래시를 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다. 창백해진 아가씨는 눈을 감고 있었다. 5분여쯤 지나서 수술은 끝났다.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서둘러 호텔방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몹시도 미안하기만 했다. 여

전히 일그러진 표정으로 침대에 있는 환자에게 마지막 처치를 해주고 주사를 놓고 나서야 긴 한숨을 돌렸다.

베를린에서 마지막 날 밤 환자의 상처는 거의 아물고 있었다. 아마도 가슴의 상처를 보면서 악몽의 호텔방을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묘령의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기억에서 지워지기 전에 연락을 해야지. 낭만이 깃든 앙가라 강변의 숲속은 아니지만 차 한 잔 함께 하자고 해야지. 데이트에 응해 줄까?

2015. 8.



### 3. 편도선의 가성막

흠뻑 땀으로 젖었다. 눈동자는 이글거리며 불꽃이 튀고 있다. 굵은 땀방울이 이마의 골을 타고 내려온다. 검은색 의상에 유달리 흰색 피부다. 동양인이지만 눈망울이 깊숙하다. 가냘픈 손가락이며 홀쭉한 몸매와 앳되고 뽀얀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무엇이 저렇게 사람을 열정으로 몰입하게 할까? 돈? 아니다. 사랑? 그것도 아니다. 이 황량한 시베리아의 벌판에는 그가 느낄만한 사랑이나 구할 돈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온통 혼신의 정열을 다하며 신들인 사람처럼 전신으로 피아노를 쳤다. 가냘프고 길쭉한 손가락만으로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깨로, 팔로 그리고 몸통과 전신이 동원 되었다. 심장을 동원하고 모든 장기까지 동원했다. 급기야는 생체 리듬을 조율하는 땀샘까지도 동원했다. 자신의 모든 조직까지 동원해서 피아노 건반에 집중했다. 전 유라시아 청중들이 황홀하고 전율하도록 만들었다. 팽과리, 북이랑 장구가 맞불을 놓는다. 환상의 무대다. 국악기와 피아노는 그렇게 청중을 매료 시켰다. 그 날 노보시비르스크는 그렇게 저물어 갔다. 극장 뒤쪽의 키 큰 미루나무가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극장 입구에서는 아직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러시아 사람들은 몸을 세차게 흔들면서 상모돌리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인지하는 곳이 편도선이다. 주변의 항원들을 미리 감지하고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항체를 만들기도 한다. 우리 몸의 최 일선이다. 최전방은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한다. 간혹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강력한 세균에 노출되면 최 일선에서 방어전선을 펼쳐야 한다. 열이 난다. 전체적인 기능을 축소하도록 온몸이 나른해지고 움직이기가 싫어진다. 모든 에너지는 침입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퇴치에 동원이 된다. 때에 따라서는 외부로부터 지원군을 부르게 된다. 의사들은 항상 열이 나는 환자들을 진찰할 때는 목구멍을 들여다보고 편도선의 상태를 점검한다. 심한 경우에는 이미 편도선에 허영게 가성막이 끼고 별장게 충혈은 물론 심한 동통과 더불어 침을 삼킬 수가 없다. 게다가 콩팥이나 심장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 조금 더 진행하면 농양을 유발한다. 그 때에는 칼을 대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편도선의 기능은 대개 7세 전후해서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간혹 남아있는 편도선은 후유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기도 감염을 자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절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식 후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연락을 받았다. 뒤뜰에 키 큰 미루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극장이다. 매미 소리가 시원하고 제비들이 유달리 많다. 멋진 극장이고 멋진 무대다. 모두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선을 다 하려는 은근과 끈기다. 연습이 끝난 모양이다. 몇 시간 후에는 바로 저 무대에서 공연을 해야 한다며 몹시 아픈 얼굴이다. 땀이 흐르고 열이 난다고 했다. 춥다며 어깨를 살짝 들어 보이기도 했다. 참 고운 얼굴이다. 목구멍을 들여다보고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 상태로 연주는 무리인데....



피아노를 친다고 했다. 입안은 물 한 모금을 마시기도 힘들 정도로 가성막으로 덮여있다. 편도선이 잔뜩 부어올라서 목구멍을 막고 있다. 험착 상태가 심한데도 억지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고맙다. 십 삼년 전에도 바로 이 극장에서 나는 장구의 명인을 치료해 준적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불과 45초를 남겨놓고 나는 그 장구의 명인에게 엄지손가락을 고추 세우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결코 단 한 번의 주사만으로 그가 그런 멋진 공연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는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건 오로지 그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감이었을 게 분명했다. 장구의 명인만이 그런 건 아니었다. 피아니스트도 역시 잘 극복해 주었다. 수액과 더불어 필요한 주사를 놓아주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에게 힘을 실어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럴수록 가장 확실하고 솔직한 답변만이 도움이 될 뿐이다. 오로지 너 자신을 믿는 것뿐이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나는 청중속의 한자리에서 숨을 죽이며 그의 연주를 관람하기 시작했다.

‘오! 신이시여. 그에게 힘을 주소서!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신들린 연주가 끝났을 때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다. ‘신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열차가 노보시비르스크를 떠난 지 얼마 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의무실을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평해 요양원 위문공연 꼭 갈 거예요.”

#### 4. 가글 결의

열차가 베를린을 향해서 질주할 때쯤이다. 권 팀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약 30분 후면 최종 목적지인 베를린에 도착한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7-7호에서는 황 경위와 안 작가 그리고 유 선생 등이 모여서 까르르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거의 보름 이상이나 좁은 꾸폐에서 함께 생활을 해온 처지라 굳이 허물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들쳐 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미 열차 생활에 적응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다. 마치 모든 불평까지도



곰처럼 소화시키고 잠시 보관하다가 달리는 열차에서 배설을 하면 더 이상의 뒤끝이 없는 것처럼. TSR의 여자 승무원들이 그랬다. 공간을 극복하고 시간을 즐기면서 열차는 그렇게 베를린으로 질주 하고 있었다.

권 팀장의 안내 방송은 승객들이 수화물을 정리하도록 움직이게 만들었다. 처음 블라디에서 보았던 우람하고 커다란 내용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운영진에서 공급하는 부식으로 인해 오히려 부피가 커지고 무거워 지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종류의 물건도 여행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게 마련이다. 하찮은 것이라도 막상 필요할 때 없으면 유쾌한 여행 기분은 어쭙지 않은 꼴이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건 물건을 아끼고 보관하는 일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다만 여행자들은 그렇게 아끼는 물건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아낌없이 제공하고 함께 공유하는 일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의약품이 그렇다. 버릴 수는 없고 없으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른다. 처음 의약품이나 의료 기구들을 준비할 때는 너무도 많은 경우를 생각하게 되어 공연히 보따리만 커졌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애물단지로 전략한다. 보면 불수록 한심스럽고 버릴 수도 없는 계류 같은 존재들이다. 의료 기구들이야 당연히 가져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운반이나 보관이 용이하게끔 미리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소모가 될 것을 전제하고 가져온 의약품들이 소모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에는 쳐다보기도 싫은 경우가 비일 비재 하다.

지난번 경우를 감안하여 인.후두염 환자의 증가를 예상 했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그로 인해서 이비인후과용으로 준비했던 가글 용액은 공연히 약품가방의 부피만 차지하고 무겁기만 했다. 방법을 모색 해야만 했다. 작은 20cc 용기에 가득 채워서 7-7호 내에서 까르르 대며 자지러지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자 승객들에게 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언 설명이 조금은 유치하지만 합리화를 하면서 입안을 청소하는 말끔한 요조숙녀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는 익살과 더불어. 돌아가며 텅텅한 가글 용액으로 입안을 헹구기 시작했다. 안 작가는 꼬치꼬치 캐묻다가 “가글 결의라도 하는 거야! 뭐야?”라며 익살을 떨었다. 그렇다 참으로 기막힌 재치였다. 아예 남아있는 가글 용액을 들고 원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아끼던 가글 용액은 목적지에 가까워 올수록 여행자들에게 그렇게 제공 되었다. 메르스를 핑계대기도 했다. 모두들 잘 협조를 해준 덕에 준비한 가글 용액은 모두 사라졌다. 가방의 부피는 줄어들고 무게도 그만큼 가벼워 졌다. 속으로 쾌재를 지르며 일거양득의 알뜰한 술수를 알면서도 빙긋이 웃으며 속아 주는 승객들이 고맙기만 하다.

도원결의에서 사용된 술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서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을 거쳐 유비, 관우, 장비의 의리의 징표가 되었다. 하지만 유라시아 친선특급에서 사용된 가글 용액은 우리의 구강에서 통일 기원을 듬뿍 머금은 채 유럽 대륙으로 뿌려 졌다. 분명 우리의 혼을 심고 염원을 이루어 줄 게 틀림없다.

## 5. 동독인 부부의 아리랑

브란덴부르크 광장의 통일 기원 대 행진은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클라이맥스인 동시에 마무리 행사다. 이 2Km 의 대행진을 위해서 14400 km을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기적을 울리며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할 때 야릇한 흥분과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붙이는 것조차 아까웠다. 정차하는 곳 마다 새롭게 접하는 문화는 승객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우리와 다른 문화가 상존하는 곳에서도 우리 민족의 발자국은 언제나 남아 있었다. 우리 민족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마다 선혈들의 애환이 공존하고 있다. 육감으로 느껴진다. 그러기에 서글프면서도 자랑스러웠다. 바르샤바까지 왔을 때에는 정말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었다.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민족이라고... ‘유라시아 친선특급’에서 자생된 응집력으로 다시 뭉쳐보자고 목청을 돋워 외치고 싶다. 비웃거나 거부할 사람은 없다. 원하는 게 무엇이고 바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나를 확실하게 일깨워 주지 않던가? 통일염원 대행진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의 표현이다.

그가 누구였건, 어디에서 왔건, 어떤 지위의 인물이건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태평소가 첫 걸음을 알리면서 뭉클했던 감격을 어찌 잊을까? 2Km 는 짧은 거리다. 하지만 그렇게 걷고 싶었다.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속의 염원을 확인하고 싶었다. 함부르크에서 온 70대의 광부는 울먹이다가 결국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 냈다. 덤석 잡은 굵은 손마디가 거칠다. 광부로 일하면서 보낸 젊은 시절이 이제는 부끄럽거나 한스럽지가 않다고 했다. 그 시절 대통령이 방문 했을 때 가슴속에 응어리를 토하면서 울었다고 회고를 했다. 지금은 보람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안타까움의 복받침이라고 했다. 죽기 전에 환희와 희열의 눈물을 한번만 더 흘리게 해 달라며 굳게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것이 국가의 힘이고 국민의 도리다. 뭉클한 가슴은 물론 콧잔등이 시큰동해진다.

자전거를 끌고 처음부터 동행한 독일인의 표정에 눈이 자주 갔다. 의외로 영어를 잘 한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입보다는 눈이 한 수 더 위다. 그는 통일 행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었다.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는 아리랑의 가락을 웅얼거린다. 가락이나 박자가 틀리지 않는다. 아니 틀려도 좋았다. 함께 공감해주는 독일인들이 이렇게도 고마울 수가 없다. 부인이라면서 조금 떨어져서 동행하던 할머니를 소개한다. 고맙다. 선뜻 e-mail 주소를 적어준다. 고이 접어서 지갑 한 구석에 보관했다.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열린 음악회는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기에 아주 만족했다.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은 맑은 하늘위로 비행운이 푸른 하늘을 가르고 지나간다. 사두마차의 장엄한 위용이 독일인들의 기상이고 상징이런가? 베를린 장벽을 바라보는 그들의 염원이 무엇이었던가?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 왔을까! 동독인 부부는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 말을 이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 왔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도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한 발짝 먼저 가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통일은 아직 멀리 있다.”

우리는 통일 독일의 환상과 희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 동독인 부부를 음악회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들은 아직도 통일 독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러나 결코 통일 자체를 부정하거나 후회하지는 않는다. 견딜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은 필연적이며 절실하다고 했다.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을 염원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임에 틀림없다. 아직은 더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통일의 기쁨이 올 거라고 한다. 그들에게도 아리랑은 아직 애환으로 남아 있다. 콧소리로 가락을 읊조리며 자리를 떠나는 그들 부부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빈다.

2015. 8.



# 조선시대 표류기

## 2 임란포로 조완벽이 전한 베트남의 풍토와 한류 스타

조완벽(趙完璧)은 배가 난파되어 베트남에 표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조완벽에 관한 이야기는 표류기가 아니다. 다만 그의 인생 자체가 표류를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표류기란 큰 제목에서 다루어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KBS <한국사 傳> 방송에서 한 번 다룬 일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방송이나 글들과 조금 다른 각도로 그의 경험을 풀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조완벽과 그를 발탁한 스미노쿠라 료이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당시 베트남 지식인 사회에서 유행했던 이수광의 시와, <조완벽전>에 전하는 당시 베트남의 풍토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임진왜란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 가. 조완벽과 스미노쿠라 료이

조완벽은 진주 출신의 선비로 1597년 정유재란 때 20세의 나이로 왜군의 포로가 되었다. 정유재란 때 사쓰마 번주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1535~1629)는 진주성을 함락시키고 경남 일대의 조선인들을 잡아들였는데 이 때 포로가 된 것이다. 그는 포로가 된 후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다가 교토의 상인 스미노쿠라 료이(角倉了以, 1554~1614)라는 거상에게 팔려갔다. 스미노쿠라 료이는 조완벽이 한문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베트남으로 가는 무역선에 동승시켰다. 당시 베트남도 조선처럼 소중화(小中華)<sup>1)</sup>를 자처하는 유교 국가였으니 조완벽 같은 한학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조완벽은 아버지가 명종 때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할 정도의 유학자 집안이었으므로 한학을 상당한 수준으로 익혔을 것이다. 당시 베트남은 두 나라로 나뉘어 전쟁 중이었다. 조완벽이 간 곳은 안남국의 수도 흥원현(興元縣)이었고, 다른 나라는 교趾국(交趾國)이었다. 당시 조완벽이 타고 간 배는 180명이 타고 갈 정도의 큰 배였는데, 중국에서 만든 것을 백금 80냥을 주고 구입했다고 한다. 이 배에는 방위 파악에 능한 절강(浙江) 사람도 타고 있었다.

그는 세 번의 베트남 방문 후 1607년 쇄환사 여우길(呂祐吉)의 일행을 따라 귀국해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귀국한 조완벽은 자신의 경험을 고향 친구 김윤안에게 들려주었고, 김윤안은 이 이야기를 매창 정사신과 창석 이준에게 전했다. 이수광은 정사신과 이준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조완벽에 대한 글인 <조완벽전>은 이수광의 《지봉유설》 권 17 <이문(異聞)> 편과 정사신의 《매창집》 권4 <조완벽전>에 전한다. 이수광의 《지봉집》, 이준의 《창석집》, 경섭의 《해사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안정복의 《목천현지》, 이지항의 《표주록》 등에도 언급되어 있다.

임진왜란 전후로 일본은 활발하게 대외교역을 펼치고 있었다. 일본을 찾아온 포르투갈 상인들과의 교역은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들에 직접 상선이 가서 교역을 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1612년과 1632년 등 최소 4회 이상 방문한 일본인들이 남긴 낙서가 확인되기도 했다. 베트남의 호이안에는 일본인 마을도 있었고, 이 마을에는 임진왜란 중인 1593년 일본인들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다리도 있다. 1687년 제주 사람 김대항, 이덕인 등도 이곳 호이안을 거쳐 귀국했다. 더 멀리서 아유타야 왕국의 왕위 계승전에 개입한 일본인도 있었다.



김종규 과장  
안동병원

이렇게 대외교역을 한 교토의 거상 중 대표적인 인물이 스미노쿠라 료이다. 그는 금융업자이자 의사인 요시다 소케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에도시대 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는 160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으로 베트남과의 통상을 개시했다. 교토에 벚꽃으로 유명한 타카세가와(高瀬川)라는 명소가 있는데, 교토의 중심부인 니조(二條)에서 가모강의 물을 후시미(伏見)로 끌어들이고 교토와 후시미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하다. 이 운하는 1611~1614년 스미노쿠라 료와 그의 아들 스미노쿠라 소안(角倉素庵) 부자의 자본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운하 이전에도 그는 여러 강에 토목사업을 벌여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교토 니손인(二尊院)에 가면 이들 부자의 묘와 스미노쿠라 료의 동상이 있다. 교토에 자유여행을 가면 한번 둘러 볼 일이다.

## 나. 한류 스타 이수광

조완벽이 베트남에 갔을 때 이수광의 시들이 베트남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조완벽이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문리후(文理侯) 정초(鄭勳)가 조완벽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모인 사람들은 이수광의 시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시들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이수광을 아느냐고 물었다. 스무 살에 잡혀간 시골 선비 조완벽이 이수광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니 베트남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한 시를 쓴 조선의 스타를 조선에서 온 선비가 모른다고 하니 이상했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이수광은 베트남의 한류 스타였던 것이다.

이수광은 몇 차례 연경에 사신으로 갔는데, 1597년 사신으로 연경에 갔을 때 그곳에서 베트남의 사신 풍극관(馮克寬)을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같은 숙소에서 50여일을 함께 머무르며 교류한 일이 있었다. 풍극관은 이수광이 베트남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의 시는 각자의 나라에서 회자되었다. 이수광이 풍극관에게 준 시 중 한 편이 이준의 《창석집》에 전한다(해석은 김순석의 글에서 재인용한 것인데 필자가 조금 바꿨다).

萬里來從瘴癘鄉 만리 밖 월남(풍토병 심한 고장)에서 와서  
 遠憑重譯謁君王 이중 통역을 거쳐 군왕을 만났네  
 提封漢代新銅柱 한나라 때 동표주가 세워진 곳이고  
 貢獻周家舊越裳 주나라 때 공물을 바쳤던 월상국이라  
 山出異形饒象骨 산 모습은 이상하게 솟아 상골(상아)이 많고  
 地蒸靈氣產龍香 땅에 영기가 피어올라 영향이 나오는구나  
 卽今中國逢神聖 지금 중국은 신성한 천자를 만났으니  
 千載風恬海不揚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세

\* 동표주는 한나라 때 중국과 베트남 국경을 표시하는 구리 기둥

\* 월상국은 주나라 때 베트남을 부르던 명칭



이수광은 <조완벽전>에서 베트남의 문물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조완벽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지 풍극관과의 대화를 통해 확보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베트남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고온다습하여 풍토병과 해충이 많다는 것, 꼬끼리를 타고 다니는 시골 소녀의 모습, 1년에 8번 수확하는 양잠, 2~3월에도 수박과 참외가 나온다는 것, 벼농사에 딱히 계절이 없다는 것, 공작 같은 동물 등을 소개하고 있다. 풍극관 일행에 대해서도 소개했는데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 귀인은 이를 검게 물들인 모습, 하인은 옷이 짧고 겨울에도 맨발인 모습, 눈이 깊고 키가 작은 외모, 온순한 성품, 문자, 검술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 다. 임란포로

김시덕은 그의 책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에서 임란포로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고 있다. 임진왜란 동안에 포로가 된 조선인은 10만여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들 대부분은 질곡의 삶을 살게 된다. 임란포로들은 유럽 노예상인들의 좋은 먹잇감이기도 했다. 심지어 부산에서 노예시장이 열리기도 했다. 피렌체 상인 프란체스코 카를레티가 조선인 포로 안토니오 코레아를 일본에서 구입하여 유럽으로 데려간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일본에 남은 포로들도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배를 훔쳐 도망가다가 배 안의 사람들 중 거의 반이 배여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칼을 시험한다며 염병으로 죽은 조선인의 시체를 갈라놓는 참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반 출신의 조선인이 일본인의 외양간과 땀나무 머슴을 살기도 했다. 이들 중 조선정부에서 쇄환(刷還)<sup>2)</sup>해온 사람은 7,500명 정도라고 하니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임진왜란의 포로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도공이었던 심당길의 14대 후손 심수관 가를 떠올리게 된다. 도공이라는 전문 기술을 갖춘 덕분에 일반 포로들보다는 조금은 나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식자층이어서 조금 나은 대우를 받았던 경우도 있다. 강항(姜抗)은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주자학을 전해주고 경서 번역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홍호연(洪浩然)은 어린 나이에 잡혀가 사가현 나베시마 가문의 가신으로 살면서 서예가로 이름을 남기기도 했지만 고국으로 보내주지 않자 자결하기도 했다. 의병으로 활동하다 포로가 된 노인(魯認)은 일본의 승려들과 교류하기도 했는데 결국 일본을 탈출해서 귀국한다.

포로들 중 가톨릭과 관계를 맺은 경우도 많다. 가톨릭 선교사들은 노예무역의 희생양이 될 뻔한 조선인 포로들을 다수 구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그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한 뒤 가톨릭 교리에 따라 할복을 거부하고 참수를 당하기도 했다)가 데려온 종군 신부 세스페데스는 쓰시마에 잡혀와 있던 조선인 포로들을 해방시키기도 했다. 그가 풀어준 포로 중 한 명은 훗날 빈센트 권이라 불렸으며 조선에 가톨릭을 포교하기 위해 북경에 파견됐다가 실패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1626년 순교하기도 했다. 나가사키에는 조선인 포로들이 세운 '성 로렌조 성당'도 있었다. 가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영주와 좋은 관계를 맺은 포로도 있었다. 가이오라는 조선인 포로는 가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 추방당하는 영주를 위해 마닐라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모시던 영주가 죽자 다시 일본으로 잠입해 포교하다가 1624년 순교했다. 마닐라에서 사망한 마리아 박 수녀도 있고, 캄보디아로 추방되었다가 예수회 수도사를 따라 다시 일본에 잠입하여 순교한 토마스도 있으며, 노예가 되어 마카오에 끌려갔다가 일본에서 순교한 가스파르 바스라는 포로도 있었다.

조완벽은 이런 포로들 중 한 명이었는데 조금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알려져 거상 스미노쿠라 료이에게 발탁되어 베트남을 다녀오고 베트남 사회에서 이수광이 유명해진 이야기도 전해준 것이다.

- 1)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 :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문화 사대주의 사상이다. 조선, 베트남 등에서 발달하였다
- 2) 쇄환(刷還) : 조선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떠도는 자기 나라 백성을 데려오던 일

### 〈참고문헌〉

1. 김시덕,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주)메디치미디어:서울, 2015.
2. 김순석, 『조선 지식인, 목판을 통해 세계를 만나다』,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주)글항아리:파주, 2013.
3. 한국사 轉, 〈제16회〉 조선선비 조완벽 베트남을 가다  
[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hankuksa/vod/1481947\\_23041.html](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hankuksa/vod/1481947_23041.html)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_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2414>
5. 위키백과\_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99%84%EB%B2%BD>
6. 브리태니커\_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3s0226a>
7. 국역 국조인물고\_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7410&cid=49618&categoryId=49618>
8.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전\_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6884&cid=41755&categoryId=41756>



# 아들과 함께 한 茶馬古道

트레킹  
1부-호도협

茶湖一室香  
話談千古事

차마고도!

2007년 한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실크로드보다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교역로.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운남성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길. 히말라야 동쪽의 험준하고 가파른 산악 지형을 따라 건설된, 티베트인과 중국 장족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아름답고 험난한 길. 라싸의 조캉 사원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오체투지의 고행을 행하며 걸어가는 순례의 길.

신비롭고 경이롭게만 여겨지던 그 길은 등산에 입문한 한 뒤엔 버킷 리스트가 되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면 더 좋겠지만 등산을 싫어하는 아내는 동행을 거부하고 둘째는 군 입대를 하여 힘들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는 큰 아이가 합류하겠다고 해서 부자간의 트레킹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려고 했으나 상품의 성원이 되지 않아 자유 여행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몇 가지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 더욱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노진우 원장  
참사랑외과의원(영주)

차마고도(車馬古道)는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한 윈난성(雲南省)의 쿤밍(昆明)에서 출발하여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티벳으로 향하는, 실크로드보다 더 오래된 옛 교역로입니다. 마방들은 윈난성에서 생산된 차를 싣고 이 길을 따라 수 개월에 걸친 여정 끝에 티벳으로 가서 그들이 키우던 말과 교환하여 오곤 했지요. 이제 이 오지에도 자동차 길이 나면서 차마고도엔 더 이상 차를 싣고 오가는 마방은 없지만 그 길의 일부는 천혜의 트레킹 코스로 다시 태어나 세계인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도협은 이 길의 일부로서 히말라야 산맥이 동쪽으로 내려앉는 끝자락에 위치한 합파설산(哈巴雪山)과 옥룡설산(玉龍雪山)사이를 흐르는 금사강(金沙江)을 따라 난 아름다운 길입니다. 누가 정했는지 몰라도 호주의 밀포드 트레일, 페루의 마추픽추 트레일과 더불어 세계 3대 트레킹 코스로 꼽힌다고도 하지요.

호도협을 가기 위해서는 배후 도시인 윈난성의 리장(麗江)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에선 직항이 없어서 쿤밍이나 청두(成都)를 경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두를 경유하는 코스를 택했는데 인천에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청두에 내린 다음,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이용하여 리장으로 향했습니다. 리장 공항에선 ‘빵차’라고 불리는 작은 대절 승합차를 타고 두시간 여 달린 후 치아오토우(橋頭)란 곳에 도착해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호도협은 원래 하나였던 거대한 산이 지각 운동으로 둘로 쪼개지면서 생긴 좁은 협곡입니다. 이 협곡 사이로 강이 흐르면서 물굽이가 거세게 굽이치는데, 남만 정벌에 나선 제갈량이 이곳에 왔을 때 그 물살이 워낙 거세서 군사들이 강을 건널 수 없자 거센 물살을 잠재우기 위해 사람의 머리 형상으로 빚은 만두를 재물로 바치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만두의 원류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호도협(虎跳峽)이란 이름은 협곡의 너비가 워낙 좁아서 호랑이가 강 가운데 있는 바위를 디딤돌 삼아 강을 뛰어 건넜다는 전설에서 -호랑이(虎)가 건너 뛴(跳) 골짜기(峽)-유래됐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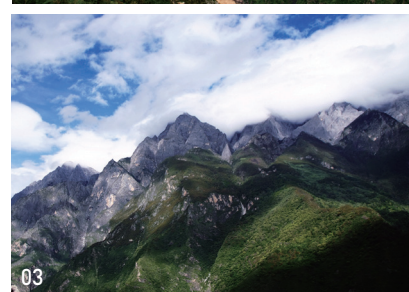
치아오토우에서 트레킹을 시작하면 처음 얼마간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나시족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나시족의 전형적인 가옥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잠시 걷다보면 점점 가옥이 드물어지고 본격적인 트레킹 길이 시작되는데 경사도가 급하지 않은 평범한 오르막길임에도 숨이 금방 가빠옵니다. 이곳이 해발 2,000미터가 넘는 고지대임을 실감합니다. 트레킹 길 바로 옆을 흐르던 금사강은 이미 발아래 저 멀리 흘러가고 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깎아지른 절벽의 옥룡설산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호도협을 이루는 양쪽의 산은 (합파설산과 옥룡설산) 원래는 하나의 산이었다가 지각 변동에 의해 양쪽으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산을 가르는 협곡은 마치 도끼로 찍어낸 듯 가파른 사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트레킹 길은 합파설산의 사면을 따라 나 있는 길이어서 트레킹 길 내내 맞은편의 옥룡설산의 위용을 마주하게 됩니다.



01



02



03

01 이 길은 트레킹에 익숙하지 않은 탐방객을 위하여 군데군데 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차(茶)를 싣고 다니던 마방들이 이전 탐방객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말을 타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길을 걷다가 지쳤을 때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부들은 탐방객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오는데, 타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손짓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도 끈질기게 쫓아와서 미안한 마음에 타 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02 28 벤드 정상에서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 포토존에 서니 다시없는 절경이 펼쳐집니다. 발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맞은편엔 깎아지른 듯한 직벽의 옥룡설산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시 한 편이 저절로 흘러나올 절경이지만 워낙 문제가 없는 위인이라 겨우 떠오른 것이 이백이 읊조렸던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 정도입니다.

03 구름이 걷히면서 드러나는 옥룡설산의 연봉들

04 차마객잔에서 중도객잔으로 향하다 보면 사람 얼굴을 닮은 바위가 있습니다. 호도협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 포인트 중 하나인데 오롯이 사람의 힘으로만 바위를 쪼아내고 깎아내서 만든 이 길에 서니 끈질기고 위대한 인간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 05 호도협객객들은 모두 이런 2층 테라스 전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을 겸하고 있는 공간인데 천하의 절경을 감상하며 즐기는 한 끼의 식사는 황제의 만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 06 중도객잔은 이른바 '천하제일의 화장실'로 유명합니다. 여행 안내서, 'Lonely Planet'에 소개된 이후 이곳에 오는 이들은 꼭 들러봐야 할 곳이 되었다는데 화장실 입구엔 '천하제일축(天下第一廁)'이라고 적혀 있고 화장실 문을 열면 창문 없이 트인 맞은편 벽면에 옥룡설산의 한 자락이 액자처럼 걸려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제일가는 화장실이라 할 만합니다.
- 07 천수천안 관음을 연상시키는 관음 폭포 앞의 절벽에 걸터앉아...



옥룡설산의 주봉인 선자두(扇子陡)의 높이가 해발 5,596m이고 호도협을 흐르는 진사강이 해발 1,700m쯤 되며 호도협 트레킹 길이 해발 2,000~2,500m 정도이니 발밑을 보면 수백 미터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눈을 들어 보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이 3,000m 이상 솟구쳐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볼 수 없는 장관이 시작부터 펼쳐져 탐방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언제 또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으랴! 카메라 셔터는 바빠지고 걸음은 느려집니다.

트레킹을 시작한지 1시간 30분 경, 출발지에서 5km 쯤에 위치한 나시객잔(納西客棧)에서 감자볶음과 돼지고기 버섯볶음으로 점심을 먹는데 중국 음식 특유의 강한 향이 없고 담백한 맛이 우리 입맛에 거부감 없이 잘 맞습니다. 나시족 음식이 우리 입맛에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네요.

나시객잔에서 식사와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길을 나서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호도협 트레킹 길에서 가장 가파르다는 길, 이름하여 28 벤드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경사도로 이어지는 이 길은 굽이굽이 28번 구부러진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데 과연 가파릅니까!! 이곳이 오늘 여정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을 텐데 희박해진 공기때문에 숨은 가빠지고 산소 공급이 부족한 근육은 도통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갈수록 멋있어지는 풍광!

한참을 가파른 길과 씨름한 끝에 드디어 28 벤드 정상에 도달합니다. 해발 2,650m, 7.3km지점, 출발한지 4시간 만입니다.

28 벤드 정상에서 보는 풍광은 그 동안의 힘듦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금사강과 옥룡설산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숨을 멎게 하는 풍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전망대 옆 과일 가게 한쪽에 있는 사인 보드에 흔적도 남기고 - 얼마전 7인의

식객 촬영차 이곳에 온 서경석의 사인도 있네요-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라 힘든 것 없이 주위 풍광을 감상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욱했던 정상부의 구름이 걷히면서 오후의 햇살을 받은 아름답고 장엄한 옥룡설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참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발걸음을 떼기 힘들게 하는 절경들을 감상하며 3시간 쯤 내려오니 숙소인 중도객잔(中途客棧)에 도착합니다. 해발 2,350m, 출발지에서 15.7km, 7시간 22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중도객잔은 호도협 트레킹 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객잔입니다. 그리고 접수를 보고 있는 청년의 영어가 상당히 능숙해서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의사소통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도객잔엔 외국인 투숙객이 많은 편입니다.

중도객잔의 접수부 옆의 계단을 오르면 2층 테라스 전망대가 나오는데 이 전망대에서 바라다 보는 옥룡설산의 모습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호도협 트레킹 중 옥룡설산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망대는 야외 식당과 카페도 겸하고 있는데 여기서 옥룡설산을 바라보며 저녁 식사를 한 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먹는다는 오골계 백숙 대신 현지식인 궁보계정과 송이버섯볶음, 돼지고기볶음을 시켰는데 세 가지 모두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식사 배경이 되는 풍경이 바로 옥룡설산! 거기다 아들과 단 둘이 나누는 식사!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요. 단언컨대 생애 최고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튿날, 중도객잔에서 호도협 트레킹의 중점인 티나객잔까지는 어제와 비슷한 풍경이 이어지는 지속적인 내리막길입니다. 출발한 지 30분 쯤 지나 만나게 되는 관음 폭포는 호도협 트레킹 길의 또 하나의 명물입니다. 트레킹 길 위로 수많은 갈래로 떨어져 내리는 물줄기가 '천수천안 관음'을 연상시키는데 때마침 우기를 맞아 수량이 풍부해져 있어 더욱 장관입니다.

관음 폭포를 지나 고도를 낮추며 내려가다 보면 주변 풍광은 어느새 마치 알프스 산자락에 온 것과 같은 목초지로 변하고 이 길을 한 시간 반 쯤 내려가면 탐방로는 차도와 만납니다. 그 도로변에 위치한 티나객잔에서 잠시 다리쉼을 한 뒤 중호도협 탐방에 나섭니다. 이곳은 호도협 계곡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라 '중호도협'이라고 불리는데, 차도에서 300m 쯤 내려가면 호도협을 가로질러 흐르는 금사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차도에서 금사강변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 우리는 장선생객잔에서 시작하는 길을 따라 내려갔다 천제객잔 쪽으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장선생객잔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이곳에서 중호도협까지 오가는 길은 개인이 닦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입장료를 받습니다-좁고 가파른 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니 드디어 중호도협을 흐르는 금사강의 급류를 만납니다. 와! 과연 장관입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던 강폭이 호랑이가 건너 뛸 수 있을 정도로 좁아지는 곳이어서 이곳을 지나는 물살은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물살입니다.



08

08 수 백 미터에 달하던 금사강이 수 십 미터로 좁아지면서 한없이 거칠어진 물결 한가운데 호랑이가 디딤돌 삼아 건너뛰었다는 호도석이 있습니다. 이곳에 서서 보니 아무리 호랑이라도 이곳에서 한 번에 강을 뛰어 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뺑의 세기를 다시 한 번 실감하고...

09 제갈량이 남만 정벌 때 거센 물결을 만나 이를 잠재우기 위해 사람의 머리 형상으로 빚은 만두를 재료로 바치고 무사히 강을 건너 곳 바로 이곳. 호도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곳이 만두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진실 여부를 떠나 물살만큼은 그 어떤 군대도 건너기 힘들만큼 거셉니다.



09

거세게 굽이치는 물결은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열하일기의 일야구도하(一夜九渡河)편에서 연암이 맞닥뜨렸던 그 호호탕탕한 물살을 이 물살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곳의 물살이 훨씬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센 물살이었지만 연암은 하룻밤 새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넜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호도협(호도협)의 물살은 박태환이 들어간 다 해도 빠도 못 추릴 것 같거든요.^^

중호도협(중호도협)의 거센 물살을 뒤로하고 반대편으로 나 있는 천제객잔(천제객잔)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길과 씨름한 끝에 다시 티나객잔(티나객잔)으로 돌아오니 이틀간에 걸친 총 24km의 호도협 트레킹이 끝납니다.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산과 물입니다.

호도협 트레킹은 첫날의 28 벤드 오르막길을 제외하면 크게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또한 체력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체력과 관계없이 누

구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체력 조건이 다양한 일행이 혹은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또 혹은 반은 걷고 반은 말을 타면서 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전날 차마객잔(차마객잔)에서 숙박을 하고 진행을 약간 느리게 한 경우 중호도협(중호도협)의 금사강(금사강) 탐방을 생략하고 트레킹을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까지 왔다면 금사강(금사강) 탐방은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빠뜨리면 반쪽짜리 트레킹이 됩니다. 그리고 티나객잔(티나객잔)에서 리장으로(리장) 가는 버스는 하루에 한 번 밖에 없고 좌석이 많지 않으니 금사강(금사강) 탐방에 나서기 전에 미리 티켓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티켓 예매는 티나객잔(티나객잔) 식당에서).

티나객잔(티나객잔)에서 출발하는 셔틀 버스를 타고 리장 시내로 들어와 수허 고성(수허 고성)의 숙소에서 짐을 풀고 호도협 트레킹(호도협 트레킹)을 마무리 합니다. 내일은 트레킹 내내 계속 맞은 편에서 병풍처럼 서 있던 옥룡설산(옥룡설산)을 오릅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현황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이후 메르스)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생 중인 신종감염병이다. 2015년 8월 18일까지 26개국에서 환자 수는 1,449명, 사망자 수는 551명으로 치사율은 38.0%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05명(76.3%)으로 대부분 발생하였고, 대한민국에서 186명(중국에서 확진된 한국인 1명 포함)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81명, 요르단 19명, 카타르 13명, 오만 6명, 이란 6명이 발생하였고 그 외 19개 국가에서는 각각 1~4명이 발생하였다.

메르스의 병원체는 코로나바이러스 C그룹에 속하며,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이다. 잠복기는 사람 간 전파 시 2~14일(평균 5~6일)이며, 질병 경과는 불현성 감염부터 경한 감염, 중한 감염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요 증상은 주로 38℃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숨가쁨 등의 호흡기 증상과 간혹 식욕부진, 매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병원소는 식용 박쥐를 포함한 박쥐류일 가능성이 높다. 중동지역에서 단봉낙타가 사람 감염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낙타가 있는 지역과 거의 일치하며, 낙타에서 메르스 항체 보유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낙타농장의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감염자의 유전자와 단편적으로 일치 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동지역에서 낙타와 직접 접촉하거나 살균되지 않은 낙타 유를 섭취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어 가족과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가족,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전파시킨다. 전파방법은 직접접촉과 비말에 의한 호



01 6월 12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경북 메르스 대책 설명

흡기 감염과 개달물에 의한다.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공간(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가족 및 의료인 등이 밀접접촉자로 감염이 잘된다. 에어로졸이 형성되는 시술(기관내 삽관, 기관지 내시경, 연무 요법 등)에 의하여 특정 지역에서 에어로졸로 공기전파 양상으로 전파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기 전파가 되지 않고 가족을 제외하고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의료기관에서는 사람 간 전파가 쉬워 유행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염자가 진단을 늦게 받고, 증상이 중하며, 많은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슈퍼 전파가 일어난다. 의료기관에서 각종 에어로졸 시술과 햇빛이 차단되고 환기가 적거나 에어컨, 가슴기 작동 등과 같이 비말을 더욱 멀리 퍼지게 하는 환경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68세 남자(1차 감염자)가 5월 20일 메르스로 처음으로 확진되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및 바레인을 방문하고 입국 후 5월 11일부터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아산에 있는 ○○의원 외래를 방문하였고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평택○○병원에 입원하였다. 17일 서울에 있는 ○○의원을 거쳐서 ○○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메르스를 의심한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여 확진하였다. 그 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4개 의료기관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을 중심으로 병동 격리 및 자가 격리를 실시하였지만 계속적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임 현 술 교수  
동국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과(경주)  
메르스 대응 경상북도 자문교수  
중앙 민간역학조사지원단장

7월 4일까지 총 186명이 확진되었으며, 사망자는 36명으로 치사율은 19.4%이다. 최초 확진자 1명 이후 2차 감염자는 30명, 3차 감염자는 124명, 4차 감염자는 23명, 8명은 확정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111명(59.7%), 여자 75명(40.3%)이며, 연령별로는 50대 42명(22.6%), 60대 36명(19.4%), 70대 30명(16.1%) 등이었다. 감염 장소는 병·의원이 178명(95.7%), 병·의원 이외 감염(구급차 3명, 가족 감염자 2명) 5명, 미확인 2명, 중동 지역 1명이었다. 대부분 병·의원과 관련되어 발생하여 의료관련 감염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감염유형별로는 일반인(환자 가족, 보호자, 방문객) 147명(79.0%), 보건의료인 39명(21.0%)이었다. 보건의료인은 직종별로는 의사 8명, 간호사 15명, 간병인과 영양보호사 8명, 기타 8명이었으며, 기타 8명은 방사선사, 청원경찰, 안전요원, 응급실 이송요원, 구급요원, 구급차 운전자, 의료기관의 IT 업체 근로자 등이었다.

경상북도에서는 5월 29일(금)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후송된 평택시 메르스 의심환자 2명(79세/여, 77세/여 ; 11번, 29번 환자로 이후에 확진됨)이 21시경, 22시 30분경 도착하여 바로 격리병상으로 이송 조치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경주에 왔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삼시간으로 퍼져 바로 격리병상으로 이송되어 안전한테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는 일반환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경주에 거주하면서 포항에 직장을 가진 교사가 5월 27일 자녀 진료를 위하여 OO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실에 체류하였다. 이 교사는 6월 1일(월) 몸살기운으로 경주 A내과에서 진료(B약국), 2일(화) 학교 조퇴 후 피부가 안 좋아서 포항 C의원에서 진료(D약국), 3일(수) 경주 E내과에서 주사 맞음, 4일(목) 경주 F의원에서 치료(G약국)를 받았고, 5일(금) 포항 식당에서 저녁 회식 후, 6일(토) 몸살기운으로 집에서 계속 쉬었다. 7일(일) 11시경 정부 메르스 확진자 발생 경우 병원 명단 공개 이후 경주시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역학조사 실시 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격리되어 있다가 12일(금) 확진되었다. 그 후 380여 명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와 능동감시를 시행하였다. 20일(토) 평택시 이송환자가 퇴원하여 평택으로 이송되고 6월 22일(월) 경주 확진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더 이상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망자도 없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포항시 등 모든 관련자와 경상북도 의사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하여 이룩된 쾌거라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는 7월 27일(월) 밀접접촉으로 인한 격리자가 더 이상 없다고 발표하고 7월 28일(화)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하였다.

메르스의 유행으로 해외여행 후 신종감염병의 유입이 얼마나 두려운지 체험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감염병의 유입 차단과 국내에서 감염병 전파 방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02 8월 4일 경북도지사와 동국의대 관련자와 사진

03 6월 12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임헌술 교수가 경북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하여 설명

04 6월 12일 밤 10시 경주시 보건소 메르스 상황실에서 질병관리본부장, 경주시장 등과 역학조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 실시



##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돌아보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불과 50년 전 세계 최빈국이던 나라가 어려움을 딛고 선진국이 된 것이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의 구현을 위해 오랫동안 해오던 국내봉사활동에 이어 2013년부터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제3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은 경상북도 보건단체가 함께 하여 43명의 의료진을 포함한 단원 72명의 단원과 캄보디아 현지의 의사, 치과의사, 지원인력 74명을 합한 146명의 봉사단으로서 일반의료 봉사단으로는 최대의 규모를 자랑할 뿐 아니라 경상북도, 캄보디아 정부요인과 경상북도의사회는 물론 5개 보건단체가 함께 하여 조직적이고 원활한, 상대 국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세 번의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이 정리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이 되어야 할지를 어렵פות이나마 알게 되었다.

### 1. 봉사활동의 필요성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6.25동란 후 세계 최빈국의 혈빛은 나라였으나 많은 우방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들의 도움은 결국 인류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크게 공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우리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자량이자 의무가 되었다. 우리 의사회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의 구현은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가진 새마을정신과 새마을운동의 노하우를 의료발전에 접목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가진 최상의 의학수준과 의료수준으로 당장의 치료의 손길을 제공하는 의료봉사활동은 물론 상대국의 낙후한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에도 다른 어느 단체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앞선 선진국과 비교할 때, 특히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원조와 봉사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다. 개발도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큰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도 원조와 봉사활동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원조와 봉사에 열중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많은 원조를 조직적으로 하며 제3세계와의 돈독한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경상북도 의사회

의 해외의료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의미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의사인 우리 직



김재왕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김재왕내과의원(안동)

## 경상북도, 캄보디아 정부요인과 경상북도의사회는 물론 5개 보건단체가 함께한 조직적이고 원활한, 상대국가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전개

업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것은 물론 가족이 참여 할 경우 가족 모두가 일체감과 봉사를 통한 자긍심을 갖는 등 우리 스스로의 힐링과 구원의 효과도 크다 하겠다.

### 2. 해외의료 봉사활동의 현재

제41대 이석균 회장님의 봉사기금(1,000만 원) 회사와 봉사단 구성에 힘입어 제42대 집행부에서 정능수 회장님의 결단과 독심으로 처음이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하여 2회에 걸친 봉사활동이 성공적으로 있었으며, 2015년 제3회 해외의료봉사활동을 갖기에 이르렀다.

제3회 봉사활동은

- ① 경상북도의 지원(3,000만 원의 약품비 지원 포함)을 바탕으로 5개 보건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가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이란 이름하에 봉사활동을 함께 하였으며,
- ② 영향력 있는 캄보디아 당국의 유력인사들(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마넛 장군, 외교통상위원장인 야라 국회의의원)과 긴밀한 상호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서로 협조하기로 양해각서(MOU)가 이루어진 것이 특별히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은 경상북도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고 5개 단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캄보디아 당국의 요청에 따라 봉사지역을 선정하였다. 봉사단원은 항공료와 숙식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며 자원하여 참여하였다.

캄보디아 당국은 통관과 행정, 진료 허가에 도움을 주었고, 현지 마을의 이장 등과 협조하여 장소를 준비하고 환자를 모이게 하는 등 현지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우리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캄보디아-김관용 지사님은 새마을운동과 실크로드 문화운동 등과 관련한 훈세총리의 정치·문화고문으로 자문역할을 하고 계시다-당국의 핵심 관계인들이 우리 봉사단과 연결된 것은 경상북도의 김관용 지사님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도움과 그간 우리의 봉사활동과 향후 계획이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비추어진 때문이라 생각되며 지난 3월의 답사 방문시 그들과의 장시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가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봉사활동의 내용은

- ① 캄보디아 측이 요청한 의료 사각지대-물도 전기가 없어 진료 자체가 불가능했던-인 프렉로카 지역에서 12개과가 이틀간에 걸쳐 진료한 결과 3,674명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 ② 예비 답사 모임에서 서로 협약한 캄보디아 측 TYDA와 CMVA(캄보디아 의료봉사 의사단체)에서 알선한 현지 의사, 치과의사, 의·치대학생이 진료협조를 하며 기술 연수를 받았고,
- ③ 프놈펜대학 한국어과 학생이 통역봉사를 통한 한국문화 및 한국의료와 접하며 실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 ④ 또 인근 초등학교 한곳을 선정, 위생교육과 아동건강 검진을 실시하였고,
- ⑤ 1·2회에 이어 캄보디아 이주여성 한 명을 선정하여 친정보내기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 ⑥ 2회 봉사활동시 함께 한국으로 와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6개월간 연수교육을 받은 Ky Watdanak이 함께 진료에 참여하며 보수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 3. 캄보디아 의료현황

캄보디아는 찬란한 앙코르 문명을 자랑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농업국이었으나 근대사에서 태국 베트남과의 전쟁, 프랑스 식민지에 이어 폴포트정권에서 저질러진 지식인 학살-킬링필드로 알려진-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인력이 처형당하였다.

전국에 걸쳐 단지 100명 정도의 의사가 살아 남았으나 그마저도 50명 가량은 해외로 피신하여 의과대학 하나도 지키기 힘든 50명 정도가 국내에 남았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국립의대 한곳이 한해 200명 정도의 의사를 배출하고 사립의대 한곳이 수년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 다른 사립의대 한곳은 최고 학년이 이제 3학년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금번 봉사활동 시 보건진료소를 한 곳 구축해 주려 하였으나 간호사는 물론 기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지의 답변으로 의료인력 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의 구축, 병원 개설, 의과대학의 확대는 아예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 4.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의 장점과 한계

##### 1) 우리의 장점

비록 3회이지만 경상북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을 시작으로 출발한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단시간 내에 매우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단체가 되었다.

금번 3회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72명의 많은 인원과 100개에 가까운 대량의 물자와 기자재 박스, 현지 인력 74명이 함께 한 대규모 봉사활동임에도 아주 조직적이고도 원활하게, 규모와 내실이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현지의 환자와 주민은 물론 캄보디아의 매스컴과 주요 인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 외에도 5개 보건단체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경상북도에서 약품비 3,000만 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 캄보디아 고위 당국자가 우리의 봉사활동에 깊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고 있다는 것 등은 타 단체가 쉽게 가질 수 없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봉사단을 이끄는 장유석 단장과 문상웅 총무이사를 비롯한 몇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함께 한 치과의사회 안영두 부회장과 안과 이우석 원장, 영상의학과 정태균 원장 등의 핵심멤버가 가진 노하우, 사무처리와 짐꾸리기를 비롯한 모든 실무처리를 맡았던 의사회 박재영 사무처장과 권순길 부장의 열정적인 활동과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 등은 매우 튼실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봉사단 모집을 조기에 마감했을 정도의 적극적인 참여와-3,000만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한-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 및 봉사기금 마련 골프대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봉사정신과 참여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 봉사단의 한계와 개선점

회원의 관심과 경상북도의 지원, 캄보디아 당국의 신뢰 및 협조, 봉사단 핵심 멤버의 열정과 노하우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봉사단의 한계를 지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 ① 5개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 ② 핵심 멤버와 사무국에 집중되어 있는 과중한 업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무를 잘 분장하는 일은 일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하겠으며,

- ③ 회원들이 부담하는 봉사기금 마련을 자발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가는 동기부여와 기술적 문제를 원할히 하는 점은 우리의 의무이자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다.
- ④ 경상북도 그리고 캄보디아 당국과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신뢰를 쌓아 가는 일 또한 우리 봉사활동이 발전해 가는데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가 있다.

## 5.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에 대한 제언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느낀점은 봉사활동은 주는 것 이상으로 그 뒤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 하나로 스스로의 만족(Self Confidence)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상당히 중독성이 있는 자기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또 하나는 상대와 주위가 주는 감사의 마음과 표시를 통해 개인은 물론 단체와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봉사활동은 도움으로 상대를 구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보상이 따라 공여자나 공여단체, 국가에도 그 이상의 도움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참으로 많은 국가들이 해외 원조와 봉사활동,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은 일찍부터 해외원조와 봉사, 특히 미국, 독일과 함께 조직적인 재난구호 활동으로 정평이 나있음을 알 수가 있고 최근 중국도 원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제 3세계의 진출의 교두보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이번 봉사기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전미호 관장측이 마련한 오찬을 겸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들의 활동이 매우 훌륭한 민간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칭찬하고 지적해 준 것은 인상 깊은 일이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도의 도움을 주는 해외의료봉사활동도 나름의 충분한 의미가 있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회성이 아닌 그들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도움, 이를테면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병원의 설립같은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우리와 함께하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상북도의사회를 비롯한 보건단체가 함께 하고 캄보디아측 인사가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여건이라면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회적인 봉사나 밀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닌, 여유가 있는 사람의 진료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시혜는 물론 공공의료의 구축사업, 의료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캄보디아 의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고 양국간에 끈끈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미 상당히 성장한 프놈펜의 헤브론 병원 같은 것이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는 우리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을 깊이 공부하고 벤치마킹하고 있고 또 현재 나날이 다르게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캄보디아가 손길을 기다리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 6. 결론

기부문화와 봉사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 구현을 위한 해외의료봉사활동이 많은 회원의 관심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내에 캄보디아의 주요 인사가 우리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등,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5개 보건단체와 경상북도가 함께 하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이 회원의 지속적이 관심 속에서 캄보디아 측과 더 끈끈한 연결고리와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캄보디아에서 흘린 땀

먼저 2015년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 내용을 회원들께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 이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루어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로서, 전기와 수도가 없는 깐달지역에서 72명의 봉사단원이 100여개 초록색 포장박스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준비하여, 5개 보건단체와 심평원 단원들과 함께 연인원 3,674명의 환자를 돌보았고, 캄보디아 보건의료향상을 위한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던 무더위는 뒷켄으로 사라지고, 달력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을은 거두어들이는 기쁨, 그리고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 무엇보다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계절이라 더욱 좋습니다. 올해도 이런 나눔을 몸소 실천해 보고자 함께한 72명의 봉사단원들과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깐달 지역에서 땀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사회공헌의 한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다문화가족 이주 여성 친정국가에서의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루어진 해외의료봉사로서 세 번에 걸쳐 봉사단장으로 참여한 필자는 그동안 펼쳐진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어떤 패러다임으로 의료봉사단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적어볼까 합니다.

### 1. 세 번째 해외의료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경상북도의회는 오래전부터 사회공헌의 한 방법으로 시설방문, 재난지역 현장진료, 연말연시 소외계층방문, 성금 기탁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오고 있었으나 평상시 봉사단 조직 구성과 봉사기금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기부문화와 봉사활동을 통하여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하겠다는 생각으로 봉사단 구성과 봉사기금마련을 비롯하여 회원들의 뜻을 한데 모아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은 제41대 이석균 회장께서 재임중에 봉사단을 구성하고 1,000만 원의 봉사기금을 회사함으로써 디딤돌이 놓여지게 되었고, 김광만 당시 부회장(현 대의원회의장)께서 도의회 의료봉사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초를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장 유 석 봉사단장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장유석외과의원(경산)

2013년과 2014년의 해외의료봉사활동은 제42대 집행부(회장 정능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해 준비모임에서는 해외의료봉사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준비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오로지 열심히 준비하다보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기대만 갖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외의료봉사는 당시 정능수 회장의 독심과 열정, 아이디어, 준비위원들의 정성, 봉사단원들의 희생적인 노력, 그리고 후원금을 기탁해주신 회원들의 뒷받침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회원들께서 정성을 담아 기탁해 주신 봉사기금은 해외봉사활동의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봉사기금마련 골프대회에서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2012년에는 2,494만 원의 기금이 모였고, 2013년, 2014년을 거쳐 금년 9월 모금골프대회에서는 3,107만 원으로 성금 액수가 늘면서 회원들의 정성도 쌓여감을 느꼈습니다. 이 기금은 앞으로도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해 준비과정과 현지에서의 의료활동 기록과 경험은 2014년, 2015년 해외봉사활동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는데 매년 초 준비위원회에서 그해 봉사단의 활동방향, 규모 등을 정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장소와 진료범위 등을 정한 후(현지 NGO단체와 협의) 7월에 출발할 때까지 봉사단의 멤버 구성, 약품 준비, 소모품 및 현지에서 필요한 기구 마련 등을 완료하여 성공적으로 진료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일지로 기록되어 이제는 날짜, 장소만 바꿔 넣으면 봉사단 구성 및 활동이 잘 이어지도록 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72명의 대규모 봉사단의 활동

경상북도의회 의료봉사단은 첫 해외의료봉사 장소로 캄보디아를 기획할 때부터 의과, 치과, 한방과 진료, 그리고 현지 의사 및 의대학생 교육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단원수가 대규모(2013년 62명, 2014년 56명, 2015년 72명)로 되었으며 아울러 의료진의 가족이 봉사활동에 함께함으로써 가족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경산산부인과의원 박일영 원장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 합류했으며, 2014년에는 예천의 황화섭치과 의원 원장 자녀가 중국에서, 2015년에는 경주 민이비인후과 의원 민정기 원장 자녀가 영국에서, 그리고 경산 대경영상의학과의원(지금은 대구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정태균원장 자녀는 2013년부터 매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우리 봉사단과 함께 진료를 도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매년 이어짐으로써 우리 봉사단이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족의 도움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큰 열정을 담은 봉사단 활동이 캄보디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에 상시로 노출되어있는 현지 주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었다면 다행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우리 봉사단의 의료진 역량은 충분한데 현지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백내장 등의 질환이 수술이나 더 나은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봉사단은 여러 국가에 대한 일회성의 의료봉사보다는 한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하여 신뢰를 심고, 그 나라의 의료진에 대한 현지교육과 한국으로의 초청 연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래에는 우리에게 연수받은 그곳 의사들이 그 나라 주민들의 질병에 대한 고통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의사회는 캄보디아에 연이어 의료봉사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킬링필드의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의사들이 희생됨으로써 국가보건과 질병치료의 원동력을 잃은 상태라서-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듯이-선진의료에 도달해 있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캄보디아에서는 의료봉사와 더불어 그 나라 의사들의 교육을 더욱 절실히 요청해 오므로써 우리 봉사단은 현지 의사 NGO단체(IMHA

& TYDA, CMVA)와 MOU를 체결하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지원으로 2014년 캄보디아 내과 의사 키 왓타낙 씨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연수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수받은 의사가 2015년 칸달지역 의료봉사의 진료현장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봉사활동이 캄보디아 의료향상에 기여를 하였다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 3. 5개 보건의료단체와 심평원이 함께한 봉사단

경북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이전 두차례의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거치면서 경상북도와 5개 보건단체와 심평원이 함께하는 봉사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2015년에는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72명의 대규모 봉사단으로 프놈펜 인근 칸달 지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곳에서 무더운 날씨와 고군분투하며 연인원 3,674명의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간 돌본 환자의 수를 보면 2013년 1,254명, 2014년 2,850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그 소문이 널리 퍼진 결과라고 여겨지며, 아무쪼록 우리의 손길이 그들에게 따스함으로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번에는 진료 장소 인근의 프렉로카 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과 손씻기 등의 위생교육도 실시 하여 학생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캄보디아 의대생들의 영어-캄보디아어 통역으로 환자와의 대화에서 다소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프놈펜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의 유창한 한국어 통역으로 환자의 아픔을 전달하고 의료진의 처방을 전달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통역봉사를 하면서 한국문화와 의료를 체험한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5개 보건단체와 심평원 단원 중에 많은 분들이 과거 다른 봉사단체에서의 해외의료봉사활동 경험이 있더라도 각자 주어진 역할을 능숙하게 잘 해내서 일찍이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의료 발전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4. 앞으로의 과제와 맺음말

지금까지 세 차례 이루어진 해외의료봉사활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지구촌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여 그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사회의 사회공헌 봉사기금 모금은 골프대회 뿐만 아니라 의학제, 학회, 등반대회 등 연중 각종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모금-물론 매달 일정한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을 하면 더 많은 회원이 소액의 기부금으로 동참할 기회를 가져 봉사의 뜻을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매년 봉사단의 활동계획은 연초부터 시작되는데 준비위원회 첫 단계부터 각 참여단체의 지혜를 모



아 걱정 규모의 봉사단,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논의하면서 준비사항을 골고루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셋째, 봉사장소에 대한 답사를 일찍 함으로써 현지에서 필요한 진료과목의 다양화와 치료범위, 봉사기간을 정하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로 가져갈 짐의 무게와 포장박스의 수량도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으면 합니다.

넷째,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현지진료와 더불어 그 나라의 사들에 대한 초청연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수받은 의사들이 그곳 의대생들을 지도하고 주민들의 질병을 돌봄으로써 그 나라의 보건의료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봉사단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은 연초에 서둘러서 신청시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사실 신청이 넘쳐 일부 회원에게 내년으로 신청을 권유한 만큼 향후에는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봉사단의 인기는 상한가입니다.

올해까지 세 번째 이루어진 해외의료봉사는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자비로 항공료, 체재비를 부담하면서 기꺼이 참여한 회원 및 가족, 그리고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심병원 단원 및 가족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직접 참여해주신 단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후원금을 희사하신 회원들께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또 지금까지 매년 봉사단 출정식을 비롯하여 현지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과 관계부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촌 이웃나라에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매년 캄보디아에서 흘린 땀은 곧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높아진 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의사회가 지향하는 사회공헌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질도, 정신도 ...

나눠야 가치가 생긴다는 어느 성직자의 말씀을 떠올리며서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매년 캄보디아에서 흘린 땀은  
곧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높아진 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의사회가 지향하는  
사회공헌일 것임을 확신합니다.

---



## 지금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과 만나고 싶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외 의료봉사단(이하 심해봉사단)은 해마다 자체적으로 해외의료봉사를 해오다 올해는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나눔의 기회를 가졌다. 2015년 7월 하순, 4박 6일 동안 킬링필드의 땅 캄보디아에서 5개 보건단체와 함께 한 의료봉사는 회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간 심해봉사단이 인도의 푸네,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서의 의료봉사는 20여명이 움직였던 소규모 활동이었다면, 이번 봉사는 5개 단체에서 모인 72명의 의료인과 가족이 하나가 되어 사랑 나눔을 성공적으로 이룬 활동이었다. 무엇보다 동아리차원의 봉사활동을 준비할 때는 직장업무와 병행하여 약품구입, 해외봉사지 선정, 재정 마련 등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챙겨야함으로 봉사를 위한 준비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것인지 잘 알기에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수고한 경북의사회 사무처 직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일면식도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 할 수 있게 서로가 배려하는 모습은 경북의사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탁월한 리더십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함께한 심평원 가족은 직원 자녀 두 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모두 해외의료봉사를 두 번 이상 경험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캄보디아 시간으로 7월 21일 자정이 다 되어 도착한 프놈펜 공항은 늦은 밤임에도 바람 한 줍 없이 무덥고 습해 작은 그늘 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날씨였다. 한참 깊은 숙면의 시간임에도 누구하나 불평의 기색 없이, 이국땅에서 맞게 될 긴장감을 안고 일사분란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짐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 한 후 숙소에 짐을 풀었다. 어쩌면 우리들의 가장 큰 과제는 '봉사보다 고온다습한 기후와의



씨름은 아닐 런지! 특히나 지독히 더위를 타는 필자에겐...'

다음날 아침 일찍, 숙소인 프놈펜 호텔에서 한 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깐달주 프렉로카 보건소로 갔다. 보건소라 하기엔 황량한 벌판 같은 열악한 장소였지만 선발로 오신 분들의 엄청난 고생 덕에 이만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생각하니 불평은 사치였다. 12개 진료과를 적절히 나누어 장소를 배치했는데 내가 있는 간이텐트 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피부과가 있었다.

소문을 듣고 아침 일찍 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들 중 태반은 신발을 신지 못했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부실한 영양에 하나같이 작고 마른 체형으로 의복은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옷보다 더 남루했다.



김 해 련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닥에 뒹구는 쓰레기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피부과 질환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감기 환자가 의외로 많아 피부과보다는 소아청소년과 및 이비인후과 환자가 더 많았다. 피부질환자 대부분은 불량한 위생 등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탓으로 손으로 긁어서 병변부위는 얼룩얼룩한 가피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자식인지 손주인지 가늠할 수 없는 아이들을 안고 오는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가 이들의 가벼운 체중과 반비례하여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뉘 애써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위로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 빛에 점점 내 한몸 가누는 것조차 힘에 벅겁게 느껴졌다. 누군가 그날의 기온이 43도라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한지 잘 모르겠다.

하은이, 성우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직원 자녀다. 이들은 엄마를 좇아 세 번째 해외봉사에 참여했다. 하은이 엄마 최차장은 심평원 재직기간 동안 해외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자신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라 한다. 이곳은 강한 자외선과 건조한 기후 등으로 젊은 나이부터 시력 손상이 나타나 백내장 등 안과질환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시력 측정을 맡은 하은이는 무질서하게 밀려오는 환자들과 통하지 않는 대화를 하며 힘겹게 시력측정을 해낸 후 “평생 이번 경험보다 힘든 때가 없었지만 안과담당 선생님의 환자 사랑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했다. 하은이의 이런 마음은 초등시절부터 온갖 짜증을 받아주면서 해외봉사에 참여시킨 최차장의 인내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봉사부터 함께 했던 성우 역시 이 땅에 불평 없이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을 보니 예전보다 몸과 마음이 훌쩍 큰 듯하다.

비단 이 아이들 뿐 일까! 남동생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슬픔을 정리할 시간도 못 가진 모 차장은 절절 끓는 아픔을 안고 업무 강도가 가장 심했던 약제실에서 핏빛 같은 땀방울을 흘렸다. 어쩌면 이 황무하고 메마른 땅에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의 고통까지 합하여 치유의 울음을 토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틀간의 만남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떤 것들을 얻었고 무엇을 주었을까! 아직 그들의 형제, 자매의 한이 이땅 곳곳마다 서려, 우기임에도 제대로 된 비조차 내리지 않은 이 땅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그저 작은 배려에도 배시시 웃음 짓는 이들에게 내가 가진 극히 작은 일부를 주고서는 무언가 큰 자선을 베푼 듯 스스로 위안하고 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본다. 그럼에도 내년에 누군가를 위해 다시 봉사를 떠난다면 지금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과 만나고 싶다.



## 가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한 열정의 경험,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아버지께서 여름휴가 기간 동안 캄보디아로 의료봉사 활동을 가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 둘째만 빼고 온 가족이 참가 신청을 했다. 내가 아는 캄보디아는 킬링필드, 앙코르와트 사원, 그림같은 문자, 발음이 너무나 생소한 ‘크메르어’, 문맹률 70% 등이 떠오르는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이다. 그곳에서 ‘학생인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언어와 문화가 소통되지 않는데도 필요한 것을 알고 도와 줄 수 있을지’라는 고민들이 출국 날까지도 내 머리 속을 맴돌았다.

새벽에 경주를 출발해서 출정식을 위해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에 도착했다. 경상북도 보건단체가 주축이 되고 전국에서 온 의료인들과 가족들이 속속 모였다. 봉사단 72명은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출정식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6시간 남짓 비행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다. 혹하는 더운 열기와 산더미 같은 짐이 공항 밖에서 우리를 맞았다. 숙소로 도착해 짐을 풀니 새벽 1시경, 아침이 되면 시작될 봉사 활동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잠이 드는 듯, 마는 듯하더니 첫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국기가 달린 단체 조끼를 입고 봉사활동지인 깐달주 프렉로카 보건소로 1시간 30분 걸려 도착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문화 유적지에 둘러싸인 멋진 곳 일거라는 상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넓은 황무지를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창고같은 단층 건물 두 채가 전부였다. 황당해 할 겨를도 없이 버스에서 내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국에서 포장해온 의료기구,약품, 부채, 영양보조식품, 치약, 칫솔, 돋보기가 든 박스를 미리 정해놓은 장소로 옮기고 풀었다. 창고 같은 건물 안은 천으로 칸을 나누어 진료실과 수술실 및 치과진료실로 사용했고 큰 의료기구가 필요 없는 진료과는 아예 천막을 세우고 야외진료 준비를 하였다.

우리 가족은 다들 뽀뽀이 흠어져 나는 안내 및 접수, 어머니는 활력징후 체크, 아버지는 이비인후과 진료, 막내동생은 환자들을 모시고 안내하는 일을 맡았다. 현지에서 프놈펜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들과 선교사, 그리고 자원한 동포 분들이 통역과 지원을 해주셨고 간호사, 의사, 통역사, 안내가 한 조가 되어 진료를 맡았다.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한의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준비와 약국을 포함한 각 파트 별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드디어 단장님이 진료 시작 구호를 외쳤다. 진짜 시작이 된 것이다.

내가 맡은 안내 접수부는 체계적인 환자 파악을 위해 오신 순서대로 손목 밴드에 숫자를 부여해 나누어 드린 후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예진 파트로 환자분을 안내하는 곳이다. 새벽녘부터 몰려 기다리던 많은 지역주민들이 진료를 일찍 받고 싶은 절박함 때문이었던지 한꺼번에 들이닥쳐 한 사람이 몇 개씩 밴드를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대기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잠시 지체되는 사이에 줄이 무너져 버리고 막무가내로 대기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접수처가 마비되었다.

민 현 지  
민이비인후과의원(경주)  
민정기 회원 자녀





접수팀과 나는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당황스러운데다 마구 물려드는 대기자들에 둘러싸여 멘붕 상태에 빠졌다. 그때 캄보디아에서 시집와서 친정 방문도 하고 통역 업무를 맡은 박선미 통역사님이 나타나 통제를 시작 했다. 팀원과 힘을 합쳐 다시금 줄을 세우고 그늘막을 만들고 의자들을 놓아 편안히 앉아 대기할 수 있게 해서 물려든 환자분들을 진정시켰다.

순서대로 안내된 환자분들은 예진을 통해 필요한 각 과 선생님들께 보내지고 진료 후 약국이나 더 진찰이 필요한 과로 가서 최대한 많은 의료 혜택과 영양제 등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접수에 있으면 대기 중인 환자들을 빠짐없이 볼 수 있는데 치아가 성한 사람이 드물고 성인이나 애들이나 대부분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이었다.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허다했고 대부분 낡고 헤어진 옷을 걸치고 다녔다. 심지어는 색이 다 빠져버린 한국 어느 유치원 체육복을 진료날 내내 입고 온 어린아이도 있었다. 도저히 이 나라가 6.25전쟁 때 물품을 보내 우리나라를 원조해 준 나라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식민지 지배와 1975년 크메르루즈 정권 때의 대학살 및 지식인 말살정책 등이 이 나라를 빈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큰 눈망울과 밝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했다.

정신없이 오전 진료가 마무리 되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가족이 다 모였다. 막내는 얼굴이 빨갛게 익고 어지럽다며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무더위와 강렬한 태양 아래서 수십 명의 환자들을 모시고 안내하러 온 종일 돌아 다녔으니 더위를 먹어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쓰러질 뻔 했다. 그즈음 내 다리 옆으로 하이에나 같이 보이는 동물 몇 마리가 지나갔다. 너무 놀라서 얼어붙어 있었는데 비쩍 마른 동네 개들이라 한

다. 통역사는 이곳의 땅은 넓으나 비옥하지 않고 비도 잘 내리지 않아 곡물은 고사하고 식물들도 잘 자라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초식·육식 동물을 막론하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고 했다. 주민들 대부분의 왜소한 체격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서였다. 식사를 마칠 무렵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 대여섯 명의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를 뺨히 보고 있었다. 남아 있는 음식들을 듬뿍 퍼서 한 접시 주었더니 접시를 받고 기뻐하면서 구석진 곳에 가져가서 식사 하는 모습에 안타깝고 속상함과 가슴 속 먹먹함이 밀려 왔다.

오후 진료가 시작 되고 막내는 또래 친구와 네일 아트 봉사를 했다. 어느 진료과 못지않게 기다리는 손님이 밀릴 정도로 성시를 이루었는데 막내 말을 빌리자면 실력은 부족했으나 네일 아트샵에 온 손님들이 환하게 웃을 때 마다 자신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마음에 뿌듯했다고 했다.

덥고 지친 상태에서 꾸준히 밀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나라도 뭐든 해야 할 것 같았다. 접수부가 잠시 한가할 때 각 부서를 돌며 차가운 물을 가져다 드리고 부채질로 잠시나마 시원하게 해드리고 긍정에너지를 전해드렸다. 모두들 고맙고 시원하다 하며 반겨주는데 정말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행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빛났고 내 마음에도 행복감이 가득 찼다.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긍정과 열정에너지를 채워가며 오후 진료가 이루어졌다. 첫 날 활동을 끝내고 늦은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다. 몸과 마음이 지쳐 늘어졌지만 오늘

활동에 대한 분임 토의를 위해 다시 모두 모였다. 몇 해 동안 의료봉사를 시행해 와서 시행착오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진료 준비에서부터 오늘 현장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단발성 도움에 그치지 않고 이곳을 위해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봉사활동의 한계성을 아쉬워하며 어떻게 해야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성심껏 논의하는 모습에 열정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봉사팀에 내가 참여해서 같이 일한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다.

어제 논의한 내용과 시행착오 덕분에 두 번째 날은 훨씬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 할 수가 있었다. 위 내시경검사, 외과 수술, 발치 및 치과치료 등 이곳 주민은 평생 처음 받아본 의료혜택이라고 했다. 시력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께는 눈에 맞는 돋보기안경을 나눠 드렸고, 주민들께 치약, 칫솔을 나눠 드리며 올바른 양치질 법도 가르쳐 드려서 다음에 왔을 때는 튼튼하고 깨끗한 치아를 유지했

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땀으로 배출이 되어서인지 화장실을 안 가도 되는 신기한 체험, 상점에서도 시원한 음료수를 찾을 수 없는 곳, 얼음을 처음 보는 아이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놀이로 금방 친해진 크고 맑은 눈의 까무잡잡한 아이들, 캄보디아 간달 지역의 모습이었다.

진료 총 인원 3,674명, 수술 25명, 내시경 검사 25명..., 등 실적을 남기고 의료봉사 활동이 끝났다.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캄보디아, 이번 같은 작은 도움들이 모여 캄보디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조그만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비록 짧은 기간의 의료봉사 활동이었지만 봉사단원 72명이 오랜 기간 준비한 정성과 노력을 모두 쏟아 부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게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한 뜨거운 열정의 경험이었다.



##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환자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SOMARY' 학생은 금번 해외의료봉사에서 의료통역반장을 지냈고 한국어자격 4급 소지자로 한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어색한 부분이 많겠지만 캄보디아 현지 학생이 쓴 글이라 문법상 맞지는 않지만 일부러 고치지 않았습니다. <편집자 주>

2015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에 있는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깐달 지방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통역을 해 드렸습니다. 의료 봉사 팀은 외과, 안과, 내과, 소아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우리는 아침 7시 프놈펜 호텔에서 만나 깐달 지방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자 한국에서 오신 캄보디아 여자 통역이 우리에게 카드를 줬습니다. 카드에는 우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우리가 통역할 부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9시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들은 바로 여러 가지 약품과 기구들을 빨리 준비했습니다. 벌써 환자가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리를 끝내자 환자가 들어와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과와 수술과를 통역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무릎이 아프고 관절염도 많이 있었고, 성인들은 머리가 늘 아프다고 했고 또 치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힘을 사용하는 일은 별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대부분 아플 때마다 병원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참거나 약국에서 간단한 약만 사 먹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이 멀지만 아침 일찍 준비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환자는 40대 남자였는데 그 환자는 수술이 세 군데나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머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다른 과는 진료가 다 끝나서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피가 멈출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쁘락 쏘마리  
(PRAK SOMARY)

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학과 4학년



저는 진심으로 의사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캄보디아에까지 오셔서 열심히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환자들은 돈이 부족해서 병원에 못 가고 자기 병에 대해 오랫동안 걱정만 많이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환자들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 쏘마리 학생이 보내온 원고 >

របាយការណ៍ពីការស្ម័គ្រចិត្តបកប្រែពេទ្យ

សាកលវិទ្យាល័យភូមិន្ទភ្នំពេញ ដេប៉ាតឺម៉ង់ភាសាកម្ពុជា  
និស្សិតឆ្នាំទី៤ ប្រាក់ សូម៉ារី (PRAK SOMARY)

នៅថ្ងៃទី២២និង២៣ ខែ កក្កដា ឆ្នាំ ២០១៥នេះ មានក្រុមពេទ្យស្ម័គ្រចិត្តជាច្រើនមកពី Gyeongsanbukdo Medical Association នៅប្រទេសកូរ៉េ បានចុះមកជួយព្យាបាលជំងឺឲ្យប្រជាជន កម្ពុជានៅខេត្តកណ្តាល ដោយមានក្រុមនិស្សិតនៃសាកលវិទ្យាល័យភូមិន្ទភ្នំពេញ ដេប៉ាតឺម៉ង់ភាសាកម្ពុជា បានស្ម័គ្រចិត្តក្នុងការបកប្រែផងដែរ ។ នៅពេលនោះដែលមានការព្យាបាលជាច្រើនផ្នែក ដូចជា ផ្នែក ភ្នែក ច្រមុះ មាត់ បីពុះក្រ ធ្មេញ ព្រោះ ពោះវៀន ជំងឺកុមារ ជំងឺទូទៅ និងមានការកាត់ ។

ក្រុមពេទ្យនិងនិស្សិតបានធ្វើការណាត់ជួបគ្នានៅពេលព្រឹកម៉ោង៧ នៅខាងមុខសណ្ឋាគារភ្នំពេញ រួចក៏បានបន្តដំណើរទៅខេត្តកណ្តាលដោយជិះឡានក្រុង ។ នៅលើឡានក្រុងបងស្រីដែលជាប្រធានក្រុមអ្នកបកប្រែបានចែកឆ្នាក់ឈ្មោះនិងចែកជាផ្នែកបកប្រែរៀងៗ ខ្លួនមកអោយពួកយើង ។ ម៉ោង៩ នៅពេលដែលពួកយើងបានទៅដល់ក្រុមពេទ្យបានប្រញាប់ប្រញាលរៀបចំថ្នាំនិងកន្លែងព្យាបាល ។ ពួកយើងបានឃើញអ្នកជំងឺមួយចំនួនមកចាំនៅទីនោះរួចទៅហើយ ។ រៀបចំរួចហើយក៏មានអ្នកជំងឺដើរចូលមកជាបន្តបន្ទាប់ ។ នាងខ្ញុំគឺជាអ្នកបកប្រែខាងផ្នែកជំងឺខាងក្រៅខ្លួននិង ខាងរះកាត់ ។ ខ្ញុំសង្កេតឃើញថាមនុស្សចាស់ភាគច្រើន ឈឺជង្គង់ និង សន្លាក់ដៃដង្ហើម ចំនែកក្មេងវិញ ឈឺក្បាល និងអ្នកខ្លះទៀតកើតជំងឺវិលដួងបាត ។ យោងតាមសំដីរបស់គាត់ភាគច្រើនគាត់ធ្វើស្រែចំការ រឺធ្វើការនៅរោងចក្រ ។ នៅប្រទេសកូរ៉េគាត់ដែលប្រើកំលាំងពលកម្ម បែបនេះមិនអាចកាត់បន្ថយបានច្រើនទេ ។ ដូច្នេះហើយពេលដែលពួកគាត់ឈឺគឺគាត់មិនមានលិខិតទៅមន្ទីរពេទ្យទេ ដូច្នេះហើយគឺគាត់ត្រូវតែទៅរកទីពឹងផ្សេងៗដើម្បីបានដោះស្រាយខ្លួនឯង ។ ចំពេលជាមួយគ្នានេះដែលនៅពេលដែលជំងឺថាមានគ្រូពេទ្យមកពីប្រទេសកូរ៉េមកព្យាបាលដោយមិនយកលុយបែបនេះ ពួកគាត់ខំមកចាំយកលេខតាំងពីព្រលឹម អ្នកជំងឺដែលមានផ្ទះនៅឆ្ងាយ ខំក្រាបតាំងពីព្រលឹមធ្វើម្ហូប រួចមកអង្គុយ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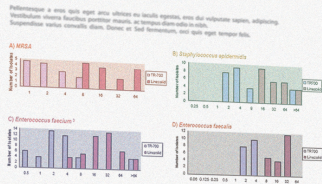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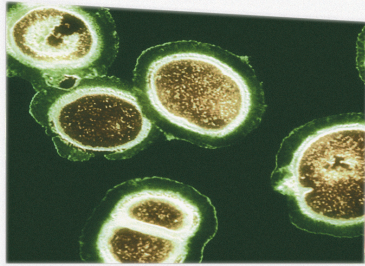
នៅថ្ងៃចុងក្រោយមានលោកព្យាបាលអាយុប្រហែល៤០ឆ្នាំបាន បានមកធ្វើការកាត់ ។ នៅលើខ្លួនគាត់ត្រូវរះកាត់ ៣ កន្លែង ។ កន្លែងចុងក្រោយគឺនៅលើក្បាល គឺមានឈាមហូរមកមិនឈប់ ។ ពេលនោះជាពេលត្រូវដល់ម៉ោងបិទហើយ ដូច្នេះក្រុមគ្រូពេទ្យនៅតាមផ្នែកផ្សេងទៀតក៏ពុំរៀបចំកន្លែង ប៉ុន្តែលោកគ្រូពេទ្យរះកាត់នៅតែបន្តនិងខំប្រឹងជួយព្យាបាលរហូតទាល់តែបានសំរេច ។

នាងខ្ញុំសូមអរគុណដោយស្មោះអស់ពីចិត្តចំពោះគ្រូពេទ្យទាំងអស់ ដែលបានចំណាយពេលយ៉ាងមានតម្លៃមកព្យាបាលអ្នកជំងឺនៅ កម្ពុជា ។ អ្នកជំងឺភាគច្រើនជាជនក្រីក្រ មានជំងឺតែគ្មានថវិកាគ្រប់គ្រាន់ក្នុងការទៅព្យាបាលនៅមន្ទីរពេទ្យ និងតែងតែបារម្ភពីជំងឺរបស់ខ្លួនឯងយូរមកហើយ ។ ដោយសារតែក្រុមគ្រូពេទ្យជួយដល់ពួកគាត់ទើបធ្វើឲ្យគាត់បានគិតថា មានសង្ឃឹមសំសារជាថ្មីផ្សេងទៀត ។ នៅក្នុងចិត្តរបស់ គាត់បានអរគុណក្រុមគ្រូពេទ្យខ្លាំងណាស់ ។

យើងខ្ញុំមានចិត្តសប្បាយរីករាយខ្លាំងណាស់ ក្នុងការរួមការងារ ជាមួយក្រុមគ្រូពេទ្យ ទោះបីជាវាយពេលខ្លីប៉ុន្តែខ្ញុំទូទូលបានបទពិសោធន៍ ។



# SUPER BACTE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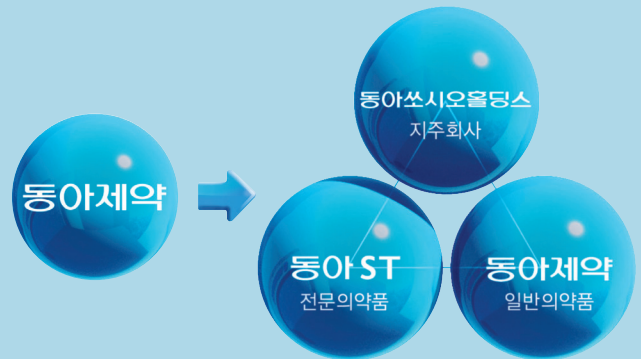
DONG-A ST



##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인 제약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동아의 기술로 개발된 슈퍼항생제 미국 FDA 신약 허가 승인

이 작은 나라에는  
세계가 열광하는 음악이 있고  
세계의 기준이 된 기술이 있고  
세계가 사랑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아직 없기에  
동아제약이 새롭게 도전합니다  
세계가 기다리던 슈퍼항생제 개발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술력을 더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  
전문약품 부문 동아ST와  
일반약품 부문 동아제약을 분리,  
동아쏘시오의 이름아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국민 여러분의 80년 성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를 향하여!  
이제 우리의 시장은 세계입니다



전문화된 글로벌 경영 체제 전환

이제부터 불끈거리는  
36시간을 느끼십시오!

스  
센돔